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295期(2026.06.17) WWW.MINGHUI.ORG

한글판 1059호 minghui.or.kr



▲ 6월 6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장미 축제의 성대한 스타라이트 퍼레이드에서 현지 파룬궁단체가 정성껏 제작한 대형 ‘법선’ 꽃차는 다시 ‘최우수 비상업 꽃차 총지휘상’을 수상했다.

주요 내용

【페이텐】 2026년 페이텐 신입생 모집 공고

【수련】 박해를 진상으로 보지 말라, 박해는 가상이다

【수련】 근본 집착을 찾자 층층의 공간을 돌파하다

【평론】 한궐, 역사의 전환점에서 ‘숨은 수호자’를 자처하다

【문화】 부처님을 해치면 죽고, 부처님을 공경하면 산다

〈목차〉

■ 페이텐공고

- 페이텐예술학교 무용반 신입생 모집 공고 3
페이텐예술학교 음악반 및 페이텐대학 음악과 신입생 모집 공고 5

■ 해외종합

-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7

■ 중국소식

-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14

■ 수련교류

- 박해를 진상으로 보지 말라, 박해는 가상이다 17
근본 집착을 찾자 층층의 공간을 돌파하다 26
자아에 대한 집착을 닦아버리다 31
속인사회의 모든 것은 수련인의 시험장 38
치통 후의 깨달음 48
제거하기 어려운 휴대폰 중독과 근본 집착 55
웁고 그림을 떠나 무조건 안으로 찾다 59

■ 시사평론

- 한궐, 역사의 전환점에서 ‘숨은 수호자’를 자처하다 64

■ 문화예술

- 부처님을 해치면 죽고, 부처님을 공경하면 산다 68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텐예술학교 무용반 신입생 모집 공고

[명혜망] 페이텐예술학교 무용반에서 신입생을 모집한다. 오늘부터 지원을 받는다. 대법제자 및 대법제자의 친척을 우대하며, 장차 대법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도 가능하다. 지원자는 먼저 인터넷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1차 심사 통과자에게는 우리가 연락할 것이다.

모집 요건:

1. 남학생은 13세 이하, 키 174cm 이상. 남학생은 15세 이하, 키 176cm 이상.
2. 여학생은 13세 이하, 키 164cm 이상. 여학생은 15세 이하, 키 167cm 이상.
3. 남녀 공통, 다리 길이가 상체 길이보다 12cm 이상 길어야 한다.
4. 다리 유연성 요건: 세로 찢기 180도, 가로 찢기 180도.

지원 자료 요건:

1. 지원자는 일반 이력서, 전공 경력, 본인 및 가족 수련 경력을 제출해야 한다. 일반 이력서에는 지원자 성명(중·영문 / 영문

이름은 신분증 이름과 일치해야 함), 성별, 본적, 국적, 생년월일, 키, 몸무게, 건강 상태, 집 주소, 이메일,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지원자는 부모의 키, 본적 및 수련 상황을 제출해야 한다.

3. 지원자 최근 사진

사진 요건: 1개월 이내의 최근 사진으로, 차렷 자세의 전신 정면, 측면, 뒷면 사진 및 다리 찢기와 허리 꺾기 사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몸에 딱 붙는 옷이나 체조복을 입어야 한다. 촬영자는 신체 조건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쫓그려 앉은 자세에서 촬영해야 한다.

4. 모든 지원 자료를 한 번에 빠짐없이 제출해야만 정식 지원 자료로 인정돼 심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5. 1차 심사 미통과자, 요건에 맞게 지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리고 본 공고의 모집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신하지 않는다.

연락 방법:

해외 지원: admission@feitianacademy.org

중국 지원: <https://www.minghui.org/mh/contact-us.html>
(명혜망 투고 플랫폼), 7번(선원, 페이텐 지원) 선택.

페이텐예술학교

2026년 6월 16일

페이텐예술학교 음악반 및 페이텐대학 음악과 신입생 모집 공고

[명혜망] 페이텐예술학교 음악반 및 페이텐대학 음악과에서 신입생을 모집한다. 오늘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자는 먼저 인터넷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1차 심사 통과자에게는 별도로 연락할 예정이다.

모집 요건:

1. 모집 대상: 음악 전공 학생, 대법제자 및 대법제자 가족 우대, 대법제자가 될 수 있는 자도 가능.
 2. 연령: 13세 이상. 조건이 특별히 좋은 경우 12세도 지원 가능.
 3. 음악반 전공 요건: 최소 음악학교 입학 전 수준에 도달해야 함.
 4. 음악과 전공 요건: 최소 음악대학 입학 전 수준에 도달해야 함.
 5. 모집 부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오보에, 바순, 트럼펫, 하프, 플루트.
- 참고: 올해 클라리넷, 호른, 베이스 트롬본, 얼후, 비파는 정원이 마감됐음.

지원 서류 요건:

6. 지원자 제출 서류: 일반 이력서, 전공 이력서, 개인 및 가족 수련 이력. 일반 이력서에는 지원자 성명(중문, 영문 / 영문 이름은 신분증 이름과 일치해야 함), 성별, 생년월일, 본적, 국적, 키, 건강 상태, 집 주소, 이메일,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7. 개인 최근 사진: 1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 정면 사진.
8. 영상 요건: 지원 서류에는 반드시 최근 연주 영상 또는 영상 링크를 포함해야 함. 영상 제출 마감일은 추후 공지함.
9. 모든 지원 서류를 한 번에 모두 제출해야만 정식 지원 서류로 인정돼 심사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음.
10. 1차 심사 탈락자, 요건에 맞춰 지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 본 공고의 모집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는 회신하지 않음.
11. 연락처:

해외 지원: admission@feitianacademy.org

중국 본토 지원: <https://www.minghui.org/mh/contact-us.html> (명혜망 투고 플랫폼), 7번(선원, 페이텐 지원) 선택.

페이텐예술학교 및 페이텐대학

2026년 6월 16일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6월 6일 파룬궁수련자로 구성된 천국악단과 ‘대법선(大法船)’ 꽃차는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장미 축제의 성대한 스타라이트 퍼레이드에 초청돼 참가했고 ‘대법선’ 꽃차는 ‘최우수 비상업 꽃차 총지휘상’을 수상했다. 오후 6시 30분부터 각종 꽃차, 마칭 밴드, 마술 공연팀 및 커뮤니티 단체가 속속 등장했다. 천국악단 단원들은 화사한 전통 의상을 입고 활기찬 모습으로 발맞춰 웅장하고 유려한 음악 속에서 착실히 나아갔다. 관람객들은 앞다투어 박수갈채를 보내고 손을 흔들어 인사했으며 많은 사람이 발걸음을 멈추고 감상하며 악단이 전하는 상서로움과 벅찬 감동에 빠져들었다. 밤이 되자 파룬궁수련자가 정성껏 제작한 대형 ‘법선’ 꽃차는 또다시 스타라이트 퍼레이드의 초점이 됐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칭찬했고 이따금 환호를 보냈다.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사람들은 법선을 보고 경탄해 마지않았으며 어떤 이들은 심지어 허리를 굽혀 인사하거나 합장하기도 했다. 진행자는 관람객에게 이렇게 소개했다. “이 아름다운 대열은 상서로운 파룬따파 수련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꽃차 위의 수련자들은 우아한 공법을 시연하고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의 원칙을 나누고 있는데 정말 멋집니다.” 이 밖에도 이번 행사는 폭스12(Fox12)와 KGW 방송국에서 동시에 현장 보도돼 TV 앞의 수십만 시청자에게 퍼레이드 성황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했다.

6월 7일 저녁, 다큐멘터리 ‘언브로큰: 셴윈, 꺾이지 않는 용기의 무대(UNBROKEN: The Untold Story of Shen Yun)’가 진리부 여름 영화제(Ministry of Truth Summer Film Fest)의

초청을 받았다. 이번 시즌 첫 번째 상영작으로 선정된 이 작품은 텍사스주 델러스시 안젤리카 영화 센터(Angelika Film Center)에서 상영되어 수많은 영화 애호가와 현지 정부 관리들의 발길을 끌었다. 영화는 선원 아티스트들이 중국공산당(중공)의 지속적인 공격과 위협에 직면해서도 신앙을 굳게 지키며 용감하게 나아가는 과정을 담아 현장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광범위한 찬사를 받았다. 영화 상영이 끝난 후 전체 관객이 기립 박수를 치며 선원 아티스트들이 보여준 용기와 끈기에 경의를 표했고, 영화 제작진에게도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델러스 북부 페어뷰시 존 허버드 시장은 아내와 함께 영화를 관람한 후 말했다. “저는 예전에 선원과 그들이 직면한 중공의 위협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관람하고 관련 상황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선원이 다시 오면 저희 부부는 공연을 보러 오겠습니다.” 알링턴시 마우리시오 갈란테 시의원은 영화가 밝힌 진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깊은 진실을 밝히며 문제의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그들(중공)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이해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대형 언론 매체들이 어떻게 매수돼 중공의 도구로 전락했는지를 폭로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오직 이익만 추구하는 본질을 폭로한 것으로, 이러한 언론들은 국가, 시민, 사회의 이익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공범으로 전락했습니다.”

6월 6일, 1년에 한 번 열리는 윈체스터 타운 데이(Winchester Town Day)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은 부스를 마련해 아름답고 부드러운 파룬궁 5장 공법을 선보였고, 많은 중국인, 서양인 및 기

타 민족 가족들이 찾아와 진상을 알아봤다. 한 중국인 여성이 손녀를 데리고 부스 앞으로 왔는데, 수련자가 이 여성에게 파룬궁 진상을 설명하려 하자 여성은 기뻐하며 말했다. “저는 여러분을 잘 알아요. 여러분 프로그램을 자주 보거든요. NTD TV도 여러분이 운영하는 거죠? 정말 잘 만들었어요!”

6월 4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앨런타운(Allentown)의 시민단체 리하이 밸리 티파티(The Lehigh Valley Tea Party)는 회의를 열고 ‘강제 장기적출 반대 의사회’ 자문위원 제시카 루소(Jessica Russo) 박사와 홍보국장 제니 식스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다큐멘터리 ‘은밀한 장기적출: 용기 있는 목소리(Silent Harvest: The Courage to Speak Up)’ 상영과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파룬궁수련자를 겨냥한 중국공산당(중공)의 생체 장기적출 범죄를 폭로했으며, 시민들에게 ‘파룬궁 보호법(S.4009)’ 지지를 호소했다. 적지 않은 참석자가 현장에서 연방 상원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해당 법안을 지지할 것을 요구했다.

6월 12일과 14일, 프랑스 파룬궁수련자들은 각각 파리 벨빌(Belleville)과 생미셸 광장(Place Saint Michel)에서 진상 알리기 행사를 열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파룬따파의 훌륭함을 보여주고,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중공의 박해 만행을 폭로하는 동시에 중공의 박해를 제지하기 위한 서명을 받았다. 아딜(Adil)은 말했다.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막는 것은 매우 터무니없는 일이며, 제가 보기엔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자밀라(Jamila)와 몇몇 친구는 생미셸 광장에서 파룬궁을 만났고, 진상을 안 후 그녀는 감회 깊게 말했다. “언론의 자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고, 자신이 사는 국가에서 어떤 신

앙이든 자유롭게 실천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일종의 노예 상태이자 하나의 감옥입니다.”

6월 6일, 네덜란드 순회 진상팀은 다시 네덜란드 서부 도시 하를렘(Haarlem)에서 정보의 날 행사를 열고 파룬따파 진상을 알리며 중공의 파룬궁 박해를 폭로했다. 진상을 이해한 시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앞다투어 서명지에 서명하며 성원했다. 한 예술학교 교사는 수련자들이 거리에서 진상을 알리는 장면을 촬영하며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5월 30일, 파룬궁수련자들은 반스카비스트리차(Banská Bystrica)로 이동해 슬로바키아 민족 봉기 광장(SNP Square)에서 서명 행사를 열었다. 행인들은 잇따라 발걸음을 멈추고 정보 전시판을 읽은 후 청원서에 서명했으며, 중국에서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표했다. 5월 23일, 슬로바키아 파룬궁수련자들은 니트라시(Nitra) 슈테파니코바(Štefánikova) 거리에서 서명과 진상 알리기 행사를 개최했다. 당일은 마침 니트라 시장(Nitriansky rínek) 행사가 열려 시내가 유난히 붐볐고 많은 행인이 진상 부스 앞에 멈춰 섰다. 많은 관광객이 흥미롭게 파룬궁 공법 시연을 지켜봤으며, 중공이 지난 27년 동안 중국 파룬궁수련자들을 박해한 사실을 알게 됐다. 박해 종식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한 많은 시민 중에는 니트라 출신의 전직 정부 공무원 야로슬라프 로렌코비치(Jaroslav Lorencovič)도 있었다. 로렌코비치는 자신을 가장 끌어당긴 것이 파룬궁의 핵심 원칙인 ‘진선인’이라고 밝혔다. 그가 말했다. “저는 평생 이 가치관에 공감해 왔습니다. 이 원칙은 어떤 이성적인 사람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중국의 파룬

궁 박해에 대해 간접적으로 들어본 적이 있었다. 불법적으로 감금된 수련자들이 장기적출 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는 이런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그야말로 재앙이며 매우 끔찍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5월 4일, ‘진선인 국제미술전’이 불가리아 발치크 궁전 문화센터(The Palace Cultural Center)에서 개막했다. 전시된 작품은 모두 파룬따파 수련자가 창작한 것으로, 진선인 이념과 파룬궁수련자가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정신을 보여줘 예술계 인사들과 관광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겸 지휘자 마르틴 판텔레예프(Martin Panteleev)는 자신의 음악 단체 ‘판텔레예프-에슈케나지 예술단(Panteleev-Eshkenazi Art Ensemble)’과 함께 궁전 문화센터에 와서 4일간의 예술제에서 공연했으며 이로 인해 같은 기간에 열린 미술전을 관람할 기회를 얻었다. 마르틴 판텔레예프는 미술전을 관람한 후 작품이 풍부한 감정과 강렬한 대비를 융합해 순수하고 조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일부 작품이 박해의 어두움을 묘사하긴 했지만, 그는 예술가들이 수련자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승화하는지를 보여주기를 더 원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속담에 ‘어둠을 지나야 별에 닿는다(Per aspera ad astra)’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이것이 바로 이번 전시회가 전달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어머니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인 마르타 판텔레예바는 작품에서 순수함과 진실함을 느꼈고 생명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각가 네즈미 무라트(Nejmi Murat)와 아내는 개막식 날 밤 전시된 그림에 대해 높은 찬사를 보낸 첫 번째 관람객들이었다. 우연히도 그는 그날 궁전의 다른 전시실에서 자신의 작품 전시회

를 열고 있었다. 네즈미 무라트는 미술전을 관람한 후 작품 속에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정신적 힘이 깃들여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술전이 파룬따파가 박해받는 사실을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정신적 경지에 대한 인류의 추구를 보여준다고 여겼다. 그는 “이 작품들은 사람들이 고난과 시련을 겪는 과정을 보여주며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영혼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하고 깊은 의미가 있는 과정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진선인’은 정말 마음을 깊이 감동시킵니다!” “마치 제가 어떤 힘에 이끌려 이곳에 희망을 찾으러 온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멜버른 시민 마리(Marie)는 호주 최대 건강 전시회에서 파룬궁수련자 부스를 찾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6월 5일부터 8일까지 멜버른 파룬궁수련자들은 다시 부스를 마련해 심신 건강 페스티벌(Mind Body Spirit Festival)에 참가했다. 파룬궁수련자들은 동작이 완만하고 배우기 쉬운 5장 공법을 시연하며 관심을 보이는 시민들을 끊임없이 맞이했다. ‘진선인’의 보편적 가치와 심신 건강을 증진하는 실제 효과는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다. 마리는 “저는 세계가 ‘진선인’을 필요로 하고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제가 바로 이 이념을 전파해야 할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은퇴자 요제프(Josef)는 현장에서 파룬따파 주요 서적인 ‘전법륜(轉法輪)’을 구매했으며, 그는 파룬따파가 사람들의 심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한 “모든 측면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대만 중부 3개 현과 시에서 온 파룬궁수련자들은 2026년 6월 6일과 7일 타이중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1박 2일 단체 법공부 교류 행사에 참가했다. 이틀간의 행사에서는 30개 팀의 소그룹

교대 교류가 있었고, 마지막 날에는 대그룹 단체 법공부 교류도 진행됐다. 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에서 온 수련자들은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 시간을 아껴 법공부를 하고, 갈등에 직면했을 때 ‘안으로 찾기’를 실천하며, 진상을 알리고 흥법하는 과정에서 심성을 제고했는지에 대한 수련 체득을 공유했다. 장화에서 온 셴쥙(賢宗)은 수련한 지 이미 20년이 넘었다. 그는 파룬궁 수련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아주 좋게 만들었고, 이익에 대한 마음과 자녀에 대한 정을 내려놓게 도와주었다고 전했다. “저는 지금 고민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그저 누구에게나 다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광둥성 레이저우시 파룬궁수련자 평차이핑(馮彩鳳)은 2025년 11월 과일 노점상에게 ‘복(福)’ 자 카드 한 장을 건넸다는 이유만으로 납치돼 잔장시 구치소에 감금됐다. 2026년 3월, 잔장시 츠칸구 법원은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재판을 열었고, 최근 그녀가 불법적으로 5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999년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한 이후, 그녀는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 수련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납치됐고, 두 차례 불법적인 강제노동을 당했으며, 두 차례 불법 판결(각각 5년형, 3년 6개월형)을 받았다.

랴오닝성 푸순시의 58세 파룬궁수련자 거신(革新)은 2025년 7월 경찰에 납치, 감금돼 모함당하고 박해받았다. 감금 기간에 그는 혼수상태에 빠져 푸순 광무국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치료를 받았다. 의식을 잃은 채 병상에서도 그는 여전히 족쇄를 차고 있었다. 가족이 족쇄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후 병원 검사에서 그가 뇌종양과 함께 뇌출혈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거신은 퇴원 후 곧장 양로원으로 보내졌다. 그는 두 다리로 걸을 수 없어 장기간 병상에 누워 있고 계속해서 감시를 받아 가족이나 외부의 방문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최근 가족은 그가 비밀리에 불법적으로 4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산둥성 둥잉시의 53세 파룬궁수련자 추홍메이(邱紅梅)는 2024년 5월 광시 구이린을 여행하던 중 시민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리다가 룡성현 공안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대와 룡지진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그녀는 이후 구이린시 제2구치소에 불법적으로 감금돼 모함을 받았다. 2024년 연말, 구이린시 중급법원은 그녀에 대해 불법적으로 재판을 열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추홍메이는 이미 2026년 5월에 3년 6개월형을 불법적으로 선고받았다.

랴오닝성 안산시의 78세 파룬궁수련자 천쑤위안(陳素媛)은 2026년 1월 20일 리산 공안분국 국보의 지시를 받은 왕산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안산시 제1 여자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리산 분국은 그녀를 모함해 검찰원에 넘겼고, 검찰원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내자 리산 분국은 3월 17일에 날조된 서류를 다시 리산 검찰원으로 이관했다. 4월 2일, 리산 검찰원은 서류를 리산 법원으로 넘겼다. 4월 22일, 그녀는 안산시 리산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녀는 불법적으로 3년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한 상태다.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왕청구 파룬궁수련자 자오시화(趙喜華)가 하얼빈시 다오리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3년 2개월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2025년 8월 21일 자오시화를 포함한 20여 명의 파룬궁수련자가 납치돼 사법적 박해를 받은 사건 중 한 사례다.

헤이룽장성 치치하얼시 푸위현의 여성 파룬궁수련자 5명이 푸위현 법원으로부터 불법적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탕싱잉(湯興英, 탕잉) 징역 2년 2개월, 벌금 5천 위안 갈취, 징구이샹(景桂香) 징역 1년 11개월, 벌금 4천 위안 갈취, 귀윈샹(郭雲香) 징역 1년 9개월, 벌금 4천 위안 갈취, 장진화(蔣俊華) 징역 1년 7개월, 벌금 4천 위안 갈취, 류구이핑(劉桂萍) 징역 1년, 벌금 2천 위안 갈취. 현재 파

룬공수련자 5명은 모두 헤이룽장성 여자감옥으로 이송돼 계속 박해 받고 있다. 이 5명의 수련자는 모두 2025년 7월 20일 경찰에게 납치됐다. 당일 푸위현 경찰은 파룬공수련자 총 21명을 납치했다.

충칭시 비산구의 80여 세 은퇴 여교사 왕진슈(王金修)는 단지 파룬공을 수련한다는 이유만으로 2026년 5월 20일 경찰에게 납치됐고, 다음 날 바로 충칭 쩌우마 여자감옥으로 납치돼 갇혀 박해받았다. 2025년 11월 6일 낮 1시경, 칭강가도 파출소 지도원 스위야오(史禹堯)가 무리를 이끌고 왕진슈 집에 난입해 불법적인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그녀를 강제로 납치했다. 80대가 넘는 노인은 파출소로 납치됐다가 밤 12시가 다 되어서야 풀려났다. 이후 경찰은 그녀의 집 아래에 장기간 사람을 배치해 감시하고, 건물 밖 통로에 CCTV를 설치했으며, 사람을 보내 미행하며 지속적으로 그녀에게 압박과 위협을 가했다. 2025년 12월 16일, 충칭시 장베이구 법원은 왕진슈를 상대로 불법적인 재판을 열었고, 이후 그녀에게 1년 6개월형을 부당하게 선고했다.

산둥성 허쩌시 차오현의 60대 파룬공수련자 주원란(朱文蘭)이 2025년 10월 초 차오현 청관진 파출소에 가택수색을 당하고 납치돼 감금됐다. 이어서 차오현 공검법(공안·검찰·법원) 관련 인원들은 그녀에게 죄를 엮어 무고하게 기소했고, 결국 불법적으로 3년형을 선고했다. 감금된 후, 원래 건강했던 주원란의 몸에 신속히 심각한 병세가 나타났고, 심지어 걸을 수조차 없게 됐다. 가족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고 나서야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주원란을 병원 병실로 보냈다. 주원란은 감옥으로 보내지기 전인 2026년 4월 25일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박해를 진상으로 보지 말라, 박해는 가상이다

글/ 중국 대법제자 설매(雪梅)

[명혜망] 2023년, 대법 수련자에 관한 영화 ‘우리는 원래 신이었다’가 멋지게 상영됐다. 영화 마지막에 ‘무미지자(無迷智者)’가 나타나 대법제자와 세상 사람들을 일깨워 주며 말했다. “다시 신이 될 수 있을지는 당신이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특별히 엄숙한 그의 표정과 깊은 기대가 담긴 눈빛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마치 대법제자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선택은 단지 자신이 신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이 대표하는 천체 중생의 생사존망이 걸린 대사이므로, 대법제자와 세상 사람들이 시련을 배제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는 듯했다.

사부님께서 신경문 ‘관견 시각에 사람 마음을 본다’를 발표하신 이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법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명혜망에서는 매일 많은 중국 수련생들이 법을 실증하고 사람을 구하다가 납치됐다는 소식을 볼 수 있으며, 사악은 대법제자에게 강요된 엄격한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사부님께서 ‘정진요지2’의 ‘교란을 배제하자’에서 말씀하셨다. “대법(大法)과 수련생들이 박해성의 사악한 고통을 받는 중에 나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당신들이 대학 시험을 치르는 것과도 같은데 선생님이 어찌 시험장에서 당신들에게 시험문제를 어떻게 풀라고 알려줄 수 있겠는가?”

나는 대법제자들의 수련이 곧 끝나려 하고 있으며, 사부님께서 우리가 화란(禍亂) 속에서도 대법에 대해 확고히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수련할 수 있는지 우리 각자 대법제자의 마지막 선택을 보고 계신다고 깨달았다. 즉 자신의 수련을 위해 답안지를 제출할 시기가 온 것이다! 박해를 전면 부정하는 속에서 원만으로 걸어가는 것으로, 이러한 박해는 사실 사부님의 애초 전면적인 배치가 아니었으며 사부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다. 하지만 구세력은 이른바 대법제자를 시험한다며 기어이 관여하려 했다. 이른바 ‘대법제자의 수련을 돕는다’, ‘사부님의 정법 성공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다 핑계일 뿐이며, 그들이 저지른 짓은 모두 사부님의 정법에 대한 교란과 파괴다.

사부님께서 ‘구세력 계책을 역이용’하시어, 우리 대법제자가 구세력이 배치한 시험을 전면 부정하는 속에서 사부님께서 배치하신 수련의 길로 걸어가 원만으로 향하게 하셨다.

사부님께서 신경문 ‘관견 시각에 사람 마음을 본다’ 중에서 우리 대법제자들에게 ‘대학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다시 한번 간곡한 가르침을 주셨다.

사부님께서 우리가 사부님의 법에 따라 행하고 ‘법을 중하게’ 여긴다면, 사악의 시험을 전면 부정하고 사부님께서 배치하신 금빛 찬란한 대도로 걸어가 ‘위대한 원만’으로 향할 수 있음을 깨우쳐 주셨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만약 우리 대법제자들이 이른바 구세력의 시험 속에서 머리를 맑게 유지하고, 사악이 어떻게 유혹하고 위협하든 흔들리지 않으며, 모두 확고하게 ‘오직 대법 사부

님께서 나를 관장하시며 기타 배치는 모두 원치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 모두 마음을 굳게 하고 모든 속인 마음과 생사를 내려놓으며, 자신과 가족의 모든 것을 사부님께 맡기고 사부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재해 주시기를 청한다면 박해는 연기처럼 흩어질 것이며, 그렇다면 박해는 바로 가상이 아니겠는가?

나는 주변의 많은 수련생이 매우 확고하며 사람을 구하는 데 두려움이 없는 것을 보았는데, 정말 대단하고 감탄스럽다. 납치돼 박해를 받았다가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다시 떨쳐 일어나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고 새로 걸어 나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하고 상화하게 사부님과 대법에 대한 굳은 믿음을 통해 정념정행을 해내어 박해를 부정했다. 모두 사부님께서 배치하신 수련의 길을 걸으며 자비롭게 사람을 구하고 있으니 경찰들도 감탄한다.

유랑생활을 하는 한 나이 많은 여자 수련생은 이렇게 말했다. “제가 집을 나온 지 벌써 5년이 되었고 경찰이 아직도 저를 찾지만 저는 두렵지 않아요. 저는 현지에서 진상을 알리는데, 가끔 힘들면 버스 정류장이나 큰 쇼핑몰 문밖에 앉아 있다가 사람이 오면 이야기를 건넵니다. 어떤 사람은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하고 기뻐하며 호신부(護身符)를 받아 가고는 감격해서 연신 고맙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저에게 합장하고, 어떤 사람은 저에게 절을 하려고도 하니, 사람들이 모두 구원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한 수련생이 말했다. “어느 노수련생은 대면해서 진상을 알린 사람이 이미 3~4만 명에 달하며 지금도 여전히 사람 구하기를 견지하고 있어요.” 어느 남자 노수련생은 “저는 어젯밤에 26명에

게 진상을 알렸고, 직접 대면해서 26권의 진상 자료를 나눠 주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또 기관에서 퇴직한 A 수련생이 생각난다. 그녀는 7~8년 전 나에게 “저는 이미 7~8만 명에게 진상을 알렸어요. 먼저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말을 붙인 다음 진상을 이야기한답니다”라고 했다. 한번은 그녀의 기관에서 당원들의 서명을 받으려고 했다. 그녀가 말했다. “제가 퇴직하기 전에는 부서에서 대법제자 신분을 공개하지 않아 아무도 제가 대법을 수련하는지 몰랐고, 부서 사람들에게 진상도 알리지 못해 잘 해내지 못했어요. 이번에 그들이 전화를 걸어 저에게 서명하고 당원임을 인정하라고 하더군요.” 그녀는 전화로 말했다고 했다. “저는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는 사람이라 공산당을 믿지 않으니 당에서 탈퇴하겠습니다! 저에게 서명하라고 찾지 마십시오. 파룬따파는 정법이며 천안문 분신자살은 모두 조작된 것이며 파룬궁을 모함하여 해치려는 것입니다.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은 모두 좋은 사람이니, 여러분은 성심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삼가 외우십시오. 그러면 평안을 보존할 수 있고 역병과 천재지변에서도 목숨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여러분에게 말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이니,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외우면 정말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그녀가 당당하게 정념을 내자 사부님께서 그녀를 위해 주재해 주셨고 박해는 해체돼 누구도 더는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다.

바로 대법제자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달렸다. 대법에 부합하면 박해는 자동으로 소멸하지만, 대법에 부합하지 않고 자신

이 부당한 옥살이 박해를 받을까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가족이 고초를 겪을까 두려워하고, 속인 중의 명예·이익·정과 안 일한 생활을 잃을까 두려워한다면 모두 사악을 기쁘게 해 덜미를 잡히게 될 것이다. 박해가 가중되고 사악은 더욱 미쳐 날뛰게 될 것인데, 이러한 상황은 바로 신사신법(信師信法)해내지 못한 것이며 박해를 부정하지 못한 것이다.

사실 1999년 박해가 시작될 때 사부님께서 신경문 ‘원만을 향해 나아가자’를 발표하셨다. 그때 대법제자들은 무리 지어 사악에 의해 강제로 ‘시험장’에 끌려가 ‘와해식’의 사악한 고함을 강요당했고, 사부님께서서는 ‘구세력 계책을 역이용’하시어 우리 대법제자 중 누가 ‘금’이고 누가 ‘모래’인지 보셨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현재 매 대법제자의 일거일동, 일언일행, 심지어 당신이 사색하는 문제마저 모두 간단한 것이 아니다. 장래에 당신들은 모두 매우 세밀하게 배치된 것임을 볼 것인데, 내가 배치한 것이 아니며, 이는 이런 구세력(舊勢力)이 배치한 것이다.”(각지설법2-미국플로리다법회 설법)

나는 대법제자가 자주 선택에 직면할 수 있다고 깨달았다. 사부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고 말하지 말라고 하신 그런 일은, 바로 구세력이 대법제자에게 배치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사부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협조하고 원용’해 바른 수련의 길을 걷고, 사부님 말씀을 잘 들어 하라는 대로 하면, 수련은 간단해지고 생각이 명확해지며, 남은 것은 노력해 사람 마음의 교란을 배제하는 것이다!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명혜망을 개창해 주시어 우리 수련의 큰 방향을 지도하셨다. 명혜망에 올라온 일부 수련생이 성공적으로

고비를 넘긴 경험은 우리에게 큰 격려를 주며, 자신의 수련과 결합해 스스로 법을 실증하는 길을 걸어 나가게 한다. 고비를 넘기는 중에 정념이 가장 소중한데, 정념이 있어야만 대법에 부합하므로 사부님께서 손을 쓰시어 우리에게 무엇이든 도와주시고 구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 못할 고비는 없다. 하지만 만약 고비를 넘기는 중에 명예·이익·정을 포함한 속인 중의 것들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심지어 이 육신마저 아낀다면, 그것은 정념이 없는 것이라 자신을 고립시키게 된다. 그때는 사람 속에 떨어진 것이라 낮은 영체도 교란할 수 있게 돼 고비를 넘기기 어려운데, 사부님과 바른 신(正神)이 손을 써서 도움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 세부 사항에서 어떻게 법에 부합할지, 법에 부합하지 않은 일사일념, 일언일행을 어떻게 피하고 부정하며 배제할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일상생활 속 세부 사항에서 자신을 닦아야 한다.

대법제자 Q 수련생은 예순에 가까운 나이인데, 그녀와 잘 아는 수련생은 그녀가 착실한 수련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그녀는 수련생의 도움으로 스스로 자료 만드는 법을 배웠고, 거리에서 진상을 알렸으며, 또 진상 편지를 발송해公安·검찰·법원·사법 기관의 중생들을 구하는 데 참여했다. 그런데 정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납치됐다.

이 수련생은 경찰이 그녀를 부당하게 심문할 때 처음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경찰이 그녀에게 자료는 어디서 냈느냐고 묻자 그녀는 자신이 만들었다고 했다. 프린터는 누가 설치해 줬느냐고 묻자 그녀는 “이것은 당신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나더러 수련생을 밀고하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라고 했다. 경찰은 더 묻지 않았다. 경찰이 그녀를 겁주며 서명하지 않으면 그녀의 가족

들을 모두 납치해 오겠다고 하자 그녀는 겁이 나 서명했고, 이튿날 경찰은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그녀는 후회막급해 줄곧 소침해져 있었으며, 자신이 가족의 정에 집착해 사부님을 배신했으니 죄가 있고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 수련생들은 그녀가 떨쳐 일어나도록 격려해 주며, 사부님께서 수련이 끝나지 않았다면 잘할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리고 수련생을 밀고 하지 않은 그녀의 정념정행을 긍정해 주며 사부님께 참회하고 새로 잘할 기회를 달라고 청하게 하는 동시에 그녀를 도와 발정념하자, 이 수련생은 정념이 다시 일어나 즉시 용기를 내어 다시금 수련하겠다는 엄정성명을 발표했다.

그해 추석 전, 경찰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 2~3명을 함께 파출소로 납치해 서명하지 않으면 그녀의 가족들도 모두 어떻게 하겠다고 위협했다. 이 수련생은 이때 마음을 굳게 먹고 결코 다시는 사부님께 죄송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지난번에는 이미 서명해 사부님께 죄송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되든 죽어도 서명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 결과, 경찰은 다시는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고 당일 그녀와 가족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다.

물론 수련은 엄숙한 것이기에 사실 수련생이 이 고비를 잘 넘기지 못한 것이었지만, 사부님께서서는 자비로우시어 그녀에게 새로 잘하고 새로 선택할 기회를 주셨다. 그녀가 마음을 굳게 먹고 ‘죽어도 서명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을 때 박해는 즉시 해체됐고 그녀는 새로 잘 해냈다! 박해는 사실 진정 가상임을 증명했으니, 처음부터 생사를 내려놓고 마음을 굳게 먹고 ‘죽어도 서명하지 않겠다’라며 자신과 가족의 모든 것을 사부님께 맡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 수련생이 어느 성 남자감옥에서 집으로 돌아와 말하기를, 자신이 돌아오기 전에 이 감옥 안의 대법제자를 박해하던 모든 형구들이 철거됐고 대법제자에게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금지됐다고 했다. 사부님께서 법을 바로잡으시는 것이 이 정도에 이르렀는데, 단지 사악이 한번 겹준다고 해서 서명하는 것은 자신의 수련에 책임지지 않는 것이며 자신의 세계 중생에게 책임지지 않는 것이다.

현재 많은 공안, 검찰, 법원, 사법, 정법위,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 공안 경찰, 그리고 주민센터 직원을 포함해 모두 진상을 알게 됐으며, 다른 공간의 사악이 더는 그들을 조종할 수 없게 돼 그들은 박해에 가담하기를 원치 않는다. 어떤 이들은 조용히 대법 수련생을 보호하는 것을 선택해 많은 죄를 소멸하고 복을 받았으니, 관직이 오르거나 재물을 얻고 자녀가 외국으로 유학을 가기도 했다. 동시에 박해에 가담한 많은 자가 악인 명부에 올랐고, 일부 경찰들은 자신의 동료가 응보를 받고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재앙이 미치는 것을 목격하고는 매우 두려워하며 감히 박해에 가담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한 수련생은 수련을 하지 않다가 수련생이 그녀를 찾아오자 새로 수련하겠다는 엄정성명을 쓰고 수련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어느 날, 경찰과 주민센터 직원이 그녀 집에 찾아와 연공을 하지 않겠다는 보증서에 서명하라고 했다. 이후 그녀는 수련생에게 “나는 서명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만약 서명하지 않으면 나의 두 아이를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고 해서 서명했어요”라고 말했다. 현재 그녀는 다시 수련하지 않고 있다.

대법제자의 모든 것은 사부님께서 주재하시는데 속인 누가 결정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사악이 사람을 겁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박해를 받은 수련생들도 정념이 부족해 초래된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사부님과 대법에 대해 반석같이 견고한 바른 믿음(正信)을 견지하고, 과감히 자신과 가족을 모두 사부님께 맡기며 죽어도 서명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오직 정법구결(正法口訣)만 외운다면, 그것이 바로 바른길을 걷는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순조롭게 사부님과 호법신의 보호를 받아 산을 밀어내고 바다를 뒤집듯 교란이 순간에 해체되고 박해가 연기처럼 흩어지게 할 수 있다.

대법제자 A는 장쩌민을 고소할 때 딸이 곧 외국으로 유학 갈 예정이었으나, 그녀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장쩌민을 고소했다. 얼마 후 딸이 대학 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가 딸에게 말했다. “사부님의 은혜에 보답할 좋은 기회가 왔으니 너도 장쩌민을 고소하렴. 목적이 순수하게 법을 실증하는 것이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 네 앞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사부님께서 주재하시기 때문이란다.” 딸은 즉시 장쩌민 고소장을 작성했고 수련생들은 협조해 발정념을 했으며 함께 당당하게 우체국에 가서 발송했다. 발송 후 마음이 매우 담담했고 곧 고소장이 성공적으로 잘 전달됐다는 접수증을 받았다. 그 결과 그녀의 앞날은 순풍에 돛 단 듯 순조로웠다.

법에서 나는 사실 어떤 각도에서 말하자면 박해는 단지 하나의 가상일 뿐이며, 사부님께서도 ‘구세력 계책을 역이용’하시어 우리 대법제자들을 성취시켜 주시는 것이라고 깨달았다. 제자가 화란 속에서 대법 자체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다. “이

런 문제가 있으므로 곧 교란이 있고, 고험(考驗)이 있을 것이다.” (전법륜) 이토록 여러 해를 수련했으니 결국은 원만으로 향해야 하지 않겠는가. 표면적으로는 사악이 박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부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 명혜망에 게재된 수련생 교류 글 중에, 한 수련생이 자신이 시험장에 가는데 사부님께서 친히 감독하시는 꿈을 꾸었다고 했다.

선원이 박해와 협박을 받고 해외에서 박해가 발생하는 것도 사악이 대법제자를 원만하지 못하게 하려는 수작이다. 제자가 생사를 내려놓는 시험을 겪지 않고 원만하려 하면 사악이 마음의 균형을 잃고 사부님께 대법제자를 대신해 감당하도록 강요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사부님께서도 이 형세를 이용하시어 뒤쳐진 수련생들에게 제고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 대법제자들을 원만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상은 단지 개인의 깨달음이니 부적절한 곳이 있다면 자비롭게 지적해 주시기 바란다.

사부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본 집착을 찾자 층층의 공간을 돌파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지난날은 차마 돌이켜보기조차 힘들다. 20대 무렵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어야 하련만, 나는 이 나이에 감기에 걸리고 열이 나며 몸에 이런저런 병이 생기고 생리통을 앓는 등 이따금 시골 진료소에 가서 약을 사고 주사를 맞곤 했다.

30세 무렵이 되자 몸 상태는 갈수록 나빠져 심장병, 표재성 위염, 신경쇠약, 불면증, 심근염, 저혈압, 기혈 부족, 맹장염(수술 절제), 양측 편도선염(수술 절제), 담낭염, 비염 등에 시달렸다. 이렇게 많은 질병이 몸에 얽혀 있었으니 내가 어떻게 살았겠는가. 참으로 고통스럽기 그지없어 살아도 죽은 것만 못했으며, 고해는 끝이 없고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다! 하지만 아득한 가운데 마치 내가 어떤 일을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늘 있었다.

1997년 7월, 나는 기쁘게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얻었고 ‘전법륜(轉法輪)’이라는 보배로운 책을 미처 다 보기도 전에 이 공법이 매우 좋다고 느꼈다. 그날 아침 나는 곧바로 연공장에 가서 연공을 배웠다. 우리 동네가 비교적 외진 곳이라 법을 늦게 얻은 편이었고 연공장에는 나를 포함해 단 세 명뿐이었다. 두 수련생 언니가 인내심 있게 가르쳐 주었고 나는 열심히 배웠는데, 동공을 채 다 배우기도 전에 아침 연공이 끝날 시간이 됐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몸이 어찌나 가볍던지, 평소에 낱을 부어 넣은 듯 무거웠던 다리로 이때는 경충경충 뛰고 싶을 정도였다. 내 마음은 너무나 기뻐고 연공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하며 사부님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렸다!

공을 배운 그날부터 나는 어떤 아프다는 느낌이 다 사라졌고, 며칠 안 돼 집안의 약과 직장 사무실 책상 서랍에 있던 약을 모두 버렸다. 나는 단숨에 흐리멍덩하고 몽매한 상태에서 벗어나 가뿐하고 뜻대로 되며 마음속에 광명이 가득 차고 얼굴엔 미소가 가득해졌다. 마치 고해에서 단숨에 천국으로 올라간 듯했는데(당시 느낌이 그랬다), 그 차이가 너무나 커서 내가 정말 운이 좋다

고 느꼈다! 너무 행복한 나머지 한번은 환각이 일어난 것처럼 ‘이게 진짜인가? 아니면 꿈을 꾸고 있는 건가?’ 하고 생각했다. 이때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이것은 진짜구나. 나는 매일 대법서적을 들고 법공부를 하고 있고 매일 아침 연공장에 가서 연공을 하고 있으며 매일 파룬따파의 불광이 널리 비추는 아래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

나는 사부님을 굳게 믿었기에 박해받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법공부를 중단하지 않았고, 사부님을 도와 사람을 구하는 일도 기본적으로 중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근본 집착을 찾지 못하고 관념상에서 전환하지 못해 늘 분노, 증오, 원망이라는 이 층차에서 걸어나오지 못했다. 한번은 내가 한 협조인 집에 갔는데 마침 다른 수련생 한 명이 그녀 집에 있었다. 내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들 둘은 이구동성으로 “마침 당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왔군요”라고 했다. 이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또 이 협조인 집에 갔고 다른 수련생이 그녀 집에 있었는데, 그들 둘은 또 이구동성으로 “마침 당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왔군요”라고 했다. 난 “그래요?”라고 했다. 이때 마음속으로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마침 잘됐네요, 나도 좀 들어봅시다. 나에게 대해 뭐라고들 했나요?”라고 했다. 잠시 침묵하더니 협조인은 다소 머뭇거리며 나에게 대해 두 가지를 말했는데, 하나는 수련생이 우리 집에 갔을 때 내가 문을 너무 늦게 열어준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여기서 수련생들이 내 뒤에서 험담을 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나 역시 그렇지 않았던가? 나는 많은 수련생의 집착을 눈여겨보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다가 적당한 상황만 생기면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댔다. 분노, 증오, 원망, 분함이 자주 마음속에 솟구쳐 너무나 많은 수련 시간을 지체했고 수련에서 제고될 너무나 좋은 기회들을 잃었다. 나와 한 협조인 수련생은 대략 3년 전에 간격이 생겼는데 우리 둘은 길에서 자주 마주쳤다. 이때 내 눈빛은 늘 요리조리 피하려 했고 내가 보는 그녀의 눈빛 역시 요리조리 피하려 했다. 우리는 또 어쩔 수 없이 두세 마디 말을 나눠야 했으니 너무나 괴로웠다. 나는 발정념으로 이 간격을 타파하려 했지만 아무리 해도 타파할 수 없었다.

2025년 4월 어느 날, 나는 법 암기를 매우 마음을 담아 하다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수련에 들어섰는가?’ 이때 한 구절이 내 뇌리에 꽂혔다. ‘나는 마침내 고해에서 탈출했다.’ 나는 ‘아이고, 이것이 바로 나의 근본 집착이구나!’라고 생각했다. 나는 근본 집착을 일깨워 주신 사부님께 지극히 감사드렸다. 이와 동시에 내 머리와 내 층층 공간의 머리는 마치 원자탄 폭발 후의 충격파처럼 층층이 돌파됐고, 마치 층층의 거대한 문이 무거운 물건에 부딪혀 열리는 것 같았다. 나는 몇 분 동안 조용히 이토록 층층의 신체가 뒤흔들리는 느낌을 체득했다. 이때가 마침 6시 발정념을 할 시간이었기에 나는 30분간 발정념을 하면서 동시에 내 층층 공간의 머리가 돌파되고, 돌파되고, 돌파되고, 돌파되는 것을 체험했다. 단지 갈수록 조금씩 약해졌을 뿐이다.

발정념을 마친 후 나는 생각했다. ‘근본 집착을 찾았다고 해서 층층의 신체에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또 생각했다. ‘층층의 공간에서 돌파된 것은 무엇일까? 틀림없이 내 층층 신체의 화강암처럼 단단하고 이기적인 구우주의 속성이 우주 대법에 의해 폭발된 것이리라.’

근본 집착을 찾은 후 내 관념은 자연스럽게 변해 다시는 다른 수련생의 부족함을 보지 않게 됐고, 수련생 한 명 한 명이 모두 그렇게 좋아 보였다. 나와 간격이 있던 수련생도 원래 내가 그 수련생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나는 마음속 깊이 그 수련생에게 사과했다. 이후 길에서 다시 그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다른 두 수련생과 함께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두 팔을 벌려 나를 아주 크게 안아주었고, 나 역시 그녀를 안았다. 그녀는 키가 크고 나는 작고 말랐기에 그녀가 나를 빈틈없이 꼭 품에 안아주었는데, 그 순간 나는 너무나 따뜻함을 느꼈고 감동해 눈물이 다 흐를 뻔했다.

또 다른 일이 있었다. 한 수련생이 나를 자기 집으로 불렀고 나는 그녀를 따라갔다. 이후 대화를 하다가 내가 한 말이 그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뿐인데 그녀는 불쾌해하며 내게 이렇게 틀렸고 저렇게 틀렸다고 하더니, 연이어 화를 내며 물었다. “당신은 왜 아무도 당신 집에 안 가는지 알아요? 왜 다들 당신을 고립시키는지 알아요? 사악이 당신에게 손을 쓰려 해요! 사악이 손을 쓰려 한다고요!” 나는 그저 마음속으로 가볍게 ‘승인하지 않는다, 승인하지 않는다’라고 두 번 말했다. 만약 예전 같았다면 나는 그녀와 맞붙어 싸우지는 않더라도 소리라도 질렀을 것이다.

지금은 다른 수련생의 부족함을 보거나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며, 때로는 안으로 찾기도 한다. 예를 들어 수련생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 나는 돌이켜 나 자신을 찾았고, 과연 진실하지 못한 내 문제를 찾아냈다. 친척 수련생이 조금 오랫동안 우리 집에 오지 않으면 나는 그것이 내 의존심을 없애기 위한 것임을 안다. 나는 또 부딪히는 모든 일에서 안으로 찾기만 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하사하신 ‘안으로 찾다’라는 이 보물을 잘 활용해 자신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수련하고, 순수한 마음가짐으로 사부님을 도와 더 많은 중생을 구하며 사부님을 따라 내 아름다운 천국 고향으로 돌아가려 한다.

수련 중에서 제자가 조금이라도 제고하는 것은 모두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 도움, 일깨움과 격려를 떠나서는 불가능하다. 수련이 마지막에 이르렀는데도 사부님께서도 내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내 근본 집착까지 일깨워 주시어, 비로소 내가 법을 실증하는 이 수련의 길을 바르게 걷게 하셨다. 제자는 깊이 알고 있다. 사부님께서 온몸이 업력투성이인 이 제자를 제도하시기 위해 나를 대신해 얼마나 거대한 죄업을 감당하셔야 했는지, 또 사부님께서 나를 제도하시기 위해 얼마나 노심초사하셨는지를 말이다. 제자는 반드시 정진하고 또 정진하겠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닦아버리다

글/ 홍콩 대법제자 화후(和煦)

[명혜망] 2019년 우한 폐렴이 발발한 이후, 중국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사람들의 마음은 몹시 불안했습니다. 저는 인류가 막다른 길 끝에 다다랐다고 강렬하게 느꼈고, 한 조각의 정토(淨土)를 찾고 싶었습니다. 끊임없이 찾고 찾던 끝에 2021년 3월 3

1일, 인연이 닿아 다행히 ‘전법륜(轉法輪)’을 읽게 되었습니다. 다 읽고 난 후 저는 마음속으로 확고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사람에게 부처 수련을 가르쳐주는 책이구나!’ 이것이 바로 제가 찾고자 했던 정토였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대법 수련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수련 초기, 저는 매일 5장 공법을 연공하고, ‘논어(論語)’와 ‘홍음(洪吟)’을 외웠으며, ‘전법륜’을 베껴 쓰면서 심신의 평온함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후천적인 관념이 형성한 자아의 폐쇄와 가로막힘 때문에 저는 어떻게 안으로 찾아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속인의 기점에 서서 수련했습니다.

한번은 저의 이익심과 체면이 건드려졌을 때, 저는 속인과 똑같이 다투고 원망했습니다. 일이 끝난 후 자신이 ‘진선인(眞·善·忍)’이라는 우주의 특성에 완전히 위배됐다는 사실에 깊이 후회했지만, 한편으로는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무력감을 털어내고 계속해서 수련인으로 지냈습니다. 그 후로 수련하려는 제 마음은 반석처럼 굳건했지만, 여전히 자아에 집착하며 안으로 찾지 못했고 자신을 수련할 줄도 몰랐습니다. 가정 관계도 잘 조율하지 못해 남편이 저에 대해 갖는 오해는 점점 더 깊어졌고, 부부 관계는 파탄 직전까지 갔습니다. 2024년 4월 말, 부모님과 남동생은 저희 부부 관계가 위태롭다는 것을 어렵듯이 알고는 먼 길을 달려와 제게 수련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또 속인처럼 그들과 여러 차례 말다툼을 벌여 그들을 화나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부모님과 남동생이 떠난 후, 저는 바람 빠진 공처럼 도무지 기운을 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수련을 이토록 형편없이 했고, 설

령 다시 부모님과 남동생이 제 앞에 선다 해도 저는 여전히 이렇게 흥분하고 이성적이지 못할 텐데, 이것이 어찌 수련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법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다고 느껴져 몹시 좌절했습니다. 좌절하는 동시에, 제가 그렇게 다급히 그들과 논쟁했던 근거로 삼았던 관념이 생각났습니다. ‘신앙은 자유다, 이는 헌법에도 규정돼 있는 것이고, 그 누구도 한 사람의 사상과 신앙을 바꿀 권리는 없다.’ 또 하나의 관념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식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식을 부속품이라 여겨 동그랗게 빚으면 동그랗게, 네모나게 빚으면 네모나게 돼야 한다고 여긴다.’

그래서 그동안 저와 부모님 사이에 형성된 뿌리 깊은 소통 방식은 억압과 반항이었습니다. 생각하다 보니 ‘관념’과 ‘뿌리 깊은’이라는 두 단어가 문득 제게 한 가지 문제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바로 후천적 관념이 형성한 자아(가짜 나)였습니다. 제가 후천적 관념으로 형성된 자아에 지배당하고 통제당할 때, 저는 그저 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실증하려 했지 남의 말은 아예 들으려 하지 않았고, 법을 실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천적 관념으로 형성된 자아가 그토록 강력하고 두꺼워서 진정한 나를 파묻어 대법과 단절시켰고, 진정한 나는 멀리서 탄식만 할 뿐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나약하고 힘없는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자신은 틀리지 않았다고, 자신은 대법의 요구를 해낼 방법이 없다고, 자신은 수련을 잘해낼 방도가 없다고 우기던 그것은 후천적 관념이 형성한 자아(가짜 나)였고 진정한 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깨달았을 때, 저는 전에 느꼈던 좌절감과 의기소침함이 일

순간 사라지는 것을 느꼈으며, 수련에 대해 다시 기운을 차리고 자신감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후천적 관념이 형성한 자아(가짜 나)라는 이 두꺼운 껍데기를 똑똑히 인식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버림으로써 저는 단번에 홀가분해졌습니다. 제게 있어서 이 자아를 명확히 인식하는 과정은 진실로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사부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그의 그 사상업력이 장기적으로 없어지지 않는가? 바로 어느 것이 자신인지 똑똑히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당신에게 수련하라고 하는가? 우선 당신은 좋지 못한 사상 그것을 닦아 없애버려야 한다. 당신이 그런 좋지 못한 것을 제거할 수 있음은, 당신이 그것을 당신이라고 승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지극히 중요하다. 당신이 그것을 당신이라고 승인하지 않기 때문에 비로소 그것을 없애버릴 수 있다. 사실 그것은 정말로 당신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후천적으로 일하면서 형성한 각종 관념이고 진실보로 형성된 업력, 바로 이런 것들이다.” “사람이 무엇을 갖고자 하는 그것은 그 자신이 결정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신이 이것을 갖지 않으려고 해야만 당신에게서 제거해 줄 수 있다.”(미국서부법회 설법)

저는 이제 부모님과 남동생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난다 해도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고, 스스로를 일깨워 후천적 관념으로 형성된 자아(가짜 나)에 이끌려 길길이 날뛰며 언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최소한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자비로우신 사부님께서서는 자아에 집착하는 문제에 대해 제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셨습니다. 2024년 11월, 명혜 라디오에서는 제21회 중국법회 교류 문장을 총 16부로 편성해 방송했습

니다. 제1부에는 ‘산골로 좌천되어도 변함없이 대법을 실증하다’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는데, 이는 한 대법제자가 박해 초기에 교사라는 자리에서 대법을 실증하고 반박해했던 경험을 서술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시의 중점 학교에서 집에서 40여 리나 떨어진 산골로 좌천돼 몇 년 동안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대법의 기준과 요구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며, 그 산골 사람들이 대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산골 지역에 눈비가 내려 길이 진창이 됐을 때 그녀는 집에 돌아가기 불편한 교사들을 위해 점심을 지어줬습니다. 또 당시 대법을 비방하는 선전이 하늘을 뒤덮던 환경에서도 그녀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이성적으로 대법의 진상을 알렸고, 대법이 사람에게 가르치는 처세의 도리를 들려줬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 사범 전공을 택했고, 역시 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런 처지에 놓였다면, 나도 이 대법제자처럼 대법을 실증할 수 있었을까? 이토록 잘해낼 수 있었을까?’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할 수 없었을까요? 제 머릿속에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자아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자가 사부님께서 제게 일깨워주신 것이라 여겼습니다. 이 글자가 나타난 후, 저는 홀연히 크게 깨달은 듯한 기분이 들면서 ‘맞아! 바로 그거였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글자는 저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명혜망에서 ‘자아에 대한 집착을 이성적으로 인식하다’라는 제목의 교류 문장을 하나 찾았는데, 글 속에서 자아에 대한 분

석이 꽤 전면적이고 깊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글의 자아에 대한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후천적으로 형성된 관념을 부정하고 배척할 때, 각종 집착심을 담담히 여기고 닦아 없앨 때, 굳건한 정념(正念)으로 사상업, 병업 등 업력을 지워 없앨 때, 그것이 바로 자아를 닦아내고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찍이 한 수련생이 저와 교류하던 중 자신이 업력을 부정하고 배척했던 인식을 공유해준 적이 있었는데, 무척이나 생생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업력이 당신에게 아프다고, 불편하다고 말할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하세요. ‘네가 아프고, 네가 불편한 거겠지!’ 업력이 당신에게 죽을 것 같다고 말할 때, 당신은 ‘너나 죽을 것 같은 거겠지’라고 말하세요.” 저는 업력에 대한 이런 부정과 배척 방식이 각종 집착심과 후천적인 관념을 제거할 때도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것의 뜻대로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배척하고, 부정하고,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가정에서 자아에 집착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간에는 서로 익숙하고 정(情)도 가장 무거워서, 예전 속인의 그런 관념으로 문제를 바라보기가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남편에게 차 한 잔을 따라줬는데, 평소 차를 마시는 사람인데도 그는 제가 따라준 차를 마시지 않고 자기가 따로 음료수를 찾아 마십니다. 제가 이불을 가져다줘도 그는 덮지 않고 다른 이불을 찾아 덮습니다. 이럴 때 저는 속이 답답해지고 은근히 화가 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당신에게 잘해줘도 안 받다니, 당신은 정말 좋고 나쁜 것도 분간을 못 하는구나! 온 하늘의 바른 신과 부처님도 나를 받아주시는데, 당신이 나를 받아주지 않다니!’

이는 법에 있지 않고 자아에 집착할 때 나오는 오만한 생각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법에서 인식할 수 있었을 때, 저는 사부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다른 사람을 고려하여”(전법륜)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그의 마음속은 매우 괴로웠을 것입니다. 제가 초기에 강경하게 수련을 고집하면서 겉으로 수련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에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저와 선을 그었던 것입니다. 또 업력 전환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가 제 업력을 지워 없애주고 심성을 제고할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에게 고마워해야 하는데 제가 어찌 또 자아에 집착해 화내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동시에, 저는 자아에 집착하는 근본 원인이 나를 위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법공부를 탄탄히 하고 마음에 새기며 대법에 따라 행하도록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해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착실히 수련해 자아에 대한 집착을 닦아버리고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무사무아(無私無我), 선타후아(先他後我)의 정각(正覺)으로 수련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상 혹시 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로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속인사회의 모든 것은 수련인의 시험장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1998년 나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대법 수련은 정말 신기해서 ‘진선인(眞·善·忍)’의 기준에 따라 진정으로 착실히 수련할 때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변했다. 아래에 내 작은 수련 체득을 적어보니, 법에 부합하지 않는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주길 바란다.

1. 수련 전후의 변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시어머니가 유난히 잔소리가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누가 조금이라도 안 좋은 소리를 하면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발을 구르고 쌍욕을 퍼부으셨다. 한번 욕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서, 10년 전 일까지 들춰내며 욕을 했고 욕을 먹던 사람이 놀라 도망가도 분을 풀지 못하셨다. 처음 몇 년 동안 시어머니는 나에게 비교적 예의를 갖췄고 나도 시어머니를 건드리지 않았기에, 시어머니는 주로 시아버지나 다른 사람들을 욕하셨다. 시아버지는 자주 화가 나서 그 자리에 앉아 끊임없이 한숨을 쉬며 담배를 피우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일하러 가시곤 했다.

시간이 지나자 나와도 갈등이 생겼다. 어느 날 내가 밖에서 돌아오는데 마침 시어머니가 마당에 개 오줌을 버리는 것과 마주쳤고 그것이 내 손목에 쏟아졌다.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왜 여기다 개 오줌을 버리세요? 다행히 저니까 망정이지 다른 사

람이었으면 어머님을 욕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곧바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셨다. 마치 누가 자기를 괴롭히기라도 한 것처럼 정오부터 밤까지 계속 난리를 치셨다.

시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고자질하며 전부 내 잘못이라고 했다. 시아버지는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내가 시어머니를 괴롭혔다며 원망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나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며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남편은 큰 소리로 사납게 소리쳤다. “당신이 무슨 낮으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당신이 건드리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당신을 욕하겠어?” 시부모님은 옆에서 몰래 즐거워하셨다. 당시 나는 너무 화가 나서 가슴이 바늘에 찔린 듯이 아팠고, 약을 먹고 겨우 조금 나아졌던 간, 허리, 신장의 병증이 다시 발작했다. 그날 밤 나는 너무 서러워 날이 밝을 때까지 울었다.

이런 일은 거의 매일 발생했다. 시어머니는 남을 욕해놓고도 약자인 척하며 하늘에 대고 울부짖고 죽네 사네 난리를 치셨다. 그러면서 며느리가 자기를 괴롭힌다며 이웃 사람들을 구경하러 오게 만드셨다. 나를 질책하는 사람도 있었고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다. 젊은 사람들은 나를 위해 말했다. “차라리 이사를 나가든가 이혼을 해요.” 이혼이라니, 아이가 너무 어렸고 게다가 우리 세대 사람들은 비교적 전통적이어서 이혼하면 사람들에게 멸시받았고 그것은 큰 불효였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아니면 우리 나가서 집을 짓고 살든가, 내 친정으로 가서 농촌 호적을 도시 호적으로 바꾸는 건 어때요?” 하지만 남편은 외아들이라 부모를 떠날 수 없다며 모두 반대했다. 나는 그저 참고 견디며 속으로 한없이 슬퍼하고 고통스러

워할 수밖에 없었다. 친정에 가서 부모님께 하소연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부모님마저 마음 아파 눈물 흘리실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는 겨우 20여 세였지만 1년 내내 약을 먹고 주사를 맞느라 얼굴이 누렇게 뜨고 깡말라갔으며 몸은 갈수록 나빠졌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내 팔자는 어찌 이리도 기구할까!’

마침내 고생 끝에 낙이 왔다. 1998년 나는 기쁘게 파룬따파를 얻었다. 연공 동작을 채 다 배우기도 전에 내 몸에 있던 모든 난치성 병통 증상이 전부 사라졌고, 소변으로 대량의 검은 물질이 배출됐다. 정공을 하며 가부좌를 틀 때면 무릎에서 발가락까지 검푸른 덩어리들이 보였다. 사부님께서 내 몸을 정화해주신 것이다. 그 후로 나는 시간을 아껴 법공부와 연공을 했고, 병 없는 가벼운 몸이 돼 온몸에 다 쓰지 못할 힘이 넘쳐났다.

법공부를 통해 나는 내 이런 고난이 모두 자신이 생생세세 지은 업력으로 빚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심을 내려놓았고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보게 했으며 내가 자진해서 많은 집안일과 농사일을 도맡았다. 시어머니에게 맛있는 것을 사드리고 새 옷을 사드렸다. 시어머니가 잘하지 못하는 일은 내가 대신 했고 더 이상 큰 소리로 말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다. 시어머니가 욕을 하시면 나는 아무 말 없이 한쪽으로 피했다. 참기 힘들 때는 속으로 사부님의 법 “참기 어려운 것도 참을 수 있고, 행하기 어려운 것도 행할 수 있다(難忍能忍, 難行能行)”(전법륜)를 묵념했다.

시어머니도 대법이 좋다는 것을 느끼고 나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쩌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가르쳐달라고 하셨다. 점차 시어머니가 욕하는

시간이 줄어들자 이웃들은 모두 이상하게 여겼다. 시어머니가 수십 년 동안 늘 욕을 달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비록 가끔은 여전히 욕을 하셨지만 시어머니 목소리만 들릴 뿐 내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다들 말했다. “이 파룬궁은 정말 대단하네.” 어떤 사람은 “○○씨, 댁 며느리한테도 파룬궁을 배우라고 하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부 친척과 친구들은 내가 대법을 배우고 건강해진 것을 보고 잇달아 대법 수련에 들어왔다.

내가 친정에 갔을 때 친척과 친구들이 나를 둘러싸고 손을 이끌며 위아래로 유심히 훑어보았다. “너 지금 어떻게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했니? 젊어지고 예뻐졌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는 말했다. “파룬궁을 연공해서 병이 다 나았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근방에 소문난 약골이었는데, 지금은 병이 다 나았을 뿐만 아니라 친정에 와서 일까지 거들어주니 그들은 믿기 힘들어했다. 나는 그들에게 파룬따파가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효과가 뛰어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선인’의 기준에 따라 자신을 단속해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진상을 알렸고, 그들은 모두 공감했다.

그 당시 나는 법공부를 많이 했고 사람 마음이 적었으며 두려워하는 마음도 적어서 세 가지 일을 순조롭게 했고 수련생과의 협력도 호흡이 잘 맞았다. 종종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진상 자료를 건넨 직후 경찰이 우리 곁을 지나가거나, 경찰이 막 지나가 얼마 가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뒤에서 다시 진상을 알리기도 했다. 우리는 진상 자료를 예쁜 비닐봉지에 담아두었다가 받길 원하는 사람에게만 주었다. 진상을 아는 사람(가족 포함)은 오히려 우리가 진상을 알리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다! 구원 받은 세인들은 우리에게 감사를 전했다.

2. 텔레비전에 대한 집착심을 수련해 버리다

최근 2년 동안 나는 점차 사극에 빠져 매일 한 편씩 연달아 보았는데 어느새 1~2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보지 않으면 즐거리가 마음에 걸려 안절부절못했고, 보고 나면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뻑뻑해져 또 후회하곤 했다. 아침 연공 시간에는 일어나지 못해 알람이 울리면 끄고 다시 잤다. 낮에 틈을 내어 연공하고 법공부를 할 때면 졸음이 와서 형식적으로 했다. 진상을 알리는 효과가 좋지 않았는데 사실은 수련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후회하고 낙담하며 고통스러워했다. 시력이 흐려지고 눈에서 누런 점액질이 많이 흘러나와 자주 휴지로 닦아야 했다. 아침에 깨면 위아래 눈꺼풀이 누런 분비물에 달라붙어 뜰 수 없었다. 매일 늘 머리가 몽롱하고 계속 잠을 자고 싶었지만 막상 잠은 오지 않았으며, 얼굴은 초췌해지고 흰머리만 갈수록 늘어났다.

이런 상태로 어떻게 중생이 대법에 대한 정념을 일으키게 할 수 있겠는가. 나 자신조차도 자신이 없어졌다. 매일 텔레비전을 끊으려 했지만 텔레비전 방송 시간이 되면 나도 모르게 텔레비전 옆에 앉아 간식을 먹으며 ‘즐겼다’. 그동안 몇 번 끊어보기도 했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고 다시 유혹을 이기지 못했는데, 이것은 구세력이 대법제자를 파멸시키려는 것이었다. 나는 매일 발정념 시간을 늘리고 법공부를 많이 했다. 사부님께 제자를 가지(加持) 해주시고 제자를 교란하고 박해하는 모든 흑수(黑手), 난귀(爛鬼)를 제거하도록 도와주시길 청했다.

설을 갖 쇠고 나서 남편은 외지로 돈을 벌러 나갔다. 그러자 나는 전처럼 한가하지 않게 됐고 매일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달아야 했으며, 집에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시어머니 식사를 챙겨 드리며 텃밭도 가꾸어야 했고 아침 연공도 해야 했다.

첫날 하루 종일 바쁘게 보낸 뒤 나는 습관처럼 소파에 앉아 한 손으로는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켜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간식을 찾았다. 이상하게도 화면에는 ‘네트워크 끊김’이라는 글자가 나타났다. 나는 순간 멍해졌다. 아! 내가 평소 너무 의존심이 강해서 텔레비전을 조작할 줄도 몰랐기에 몇 번을 다시 시도해도 안 됐다(나는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 그만두고 간식이나 먹자며 큰 봉지의 간식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못 보는 괴로움을 달랬고 아주 억지로 잠을 잤다.

이튿날, 또 어제와 같은 행동을 반복한 뒤 억지로 방에 들어갔지만 마음은 첫날보다 훨씬 가벼워졌다. 사흘째, 나흘째에는 리모컨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앉아서 과일만 조금 먹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이것은 사부님께서 내 텔레비전 중독을 끊도록 도와주시는 것이구나.’ 나는 즉시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말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나는 서둘러 법공부를 하러 갔다.

지난 몇 년 동안 텔레비전을 보느라 얼마나 많은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던가! 사부님께 얼마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던가! 며칠 뒤 집안일을 마치고 나는 텔레비전이나 소파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법공부를 했다.

지금 나는 더 이상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다. 눈도 더 이상 뻑뻑하거나 아프지 않고 시력도 한결 편안해졌다. 오랫동안 물이 새던 수도꼭지도 새것으로 바꾸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물이 새지 않게 됐다. 속인에게 진상을 들려주려던 기기가 카드 여러 장을

바뀌 끼워도 몇 마디만 나오다 멈춰버려 오랫동안 수리하러 가지 못했다. 그날 막 수리하러 가려던 참에 무심코 켜보니 놀랍게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3.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심을 다시 수련해 제거하다

시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다. 큰시누이와 작은시누이는 시어머니를 자신들의 집에 번갈아 모시려 했다(아마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부하신 것 같다). 시아버지의 돈과 통장을 모두 작은시누이가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야 알게 됐다). 이 일로 평소 성실하고 온화하던 남편은 이례적으로 시누이들에게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 번 했다. “나는 아들인데 아버지는 왜 돈을 아들에게 주지 않으셨을까?” 시아버지의 모든 장례비용은 남편이 휴대폰으로 한 번에 결제했고 다른 모든 비용도 우리가 전부 냈는데, 현지에서 가장 좋은 풍습 기준에 따라 치렀기에 비용 액수도 적지 않았다. 시누이들은 미안했는지 작은시누이가 계산을 해 세 가족이 나누어 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가장 큰 몫을 냈고 시누이들은 절반도 안 되게 조금 냈다.

시누이들이 돌아갈 때 오히려 우리에게 시위하듯 말했다. “우리가 엄마 모셔간다!” 나는 내가 수련인이고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우리 자식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했다. “형님들이 먼저 어머님을 모시고 가서 한동안 같이 지내며 기분 전환을 시켜 드리세요. 어머님이 돌아오고 싶어 하시면 언제든 오셔도 돼요. 이곳은 영원히 어머님 집이니깐요.”

시어머니는 큰시누이 집에서 열흘 남짓 지냈고 작은시누이 집에서는 하룻밤만 지냈는데 시누이들은 도저히 견디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수십 년 동안 낮에도 잔소리하고 밤에도 잔소리하는 습

관이 몸에 배었기 때문이다.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시어머니가 잠들 때까지 그 잔소리를 들어주셨다. 큰시누이, 작은시누이 두 집의 자녀들은 모두 불만이 있었다. 손주들은 학교에 가야 하고 자녀들은 출근해야 하는데 온 가족이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영향을 주었기에 시누이들은 다시 시어머니를 모셔왔다. 내가 대법을 수련하지 않았다면 나는 틀림없이 거절했을 것이다. 내 딸이 결혼할 때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돈 한 푼 보태주지 않으셨다. 하지만 두 시누이 집 딸들이 시집갈 때는 큰 세뱃돈 봉투를 주셨고 명절마다 그 두 집에 선물을 보내셨다.

나는 가끔 남편에게 반농담으로 말했다. “당신 정말 어머니가 낳은 아들 맞아요?”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다. 돌아오셨으면 그만이었다. 시어머니는 건강도 괜찮은 편이라 우리가 식사만 챙겨드리면 됐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작은 확성기처럼 끊임없이 잔소리를 늘어놓으셨다. 시어머니가 소란을 피우면 남편은 텔레비전 소리를 좀 더 크게 틀어놓고 텔레비전을 들으며 자거나, 아니면 저녁을 일찍 먹고 산책을 나갔다가 시어머니가 문을 닫고 주무실 때야 들어오곤 했다.

어느 날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굉음이 들려 깜짝 놀라 뛰어나갔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머무는 방의 모든 문을 자기 팔뚝만큼 굵은 나무 막대기 10여 개로 버텨 놓고, 그 아래에 7~8장의 벽돌을 바짝 대어 고정하고 계셨다. 그 소리는 바로 벽돌로 나무 막대기를 두드려 방문을 고정하는 소리였다. 4개의 문에 수십 개의 나무 막대기, 수십 장의 벽돌을 밤이면 버텨 놓고 낮이면 다시 빼내셨다. 침실 안에는 채소에 물을 주는 큰 물통 6개를 놓아두어야 했고, 문과 창문은 비닐로 꼼꼼히 막아두셨다.

매일 이런 일을 반복하니 문이 자주 망가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고 늘 남편을 불러 문을 고치게 하셨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문을 받치지 말라고 큰 소리로 버럭 소리를 질렀고, 이것이 그만 벌집을 쭈신 격이 됐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자기 일에 참견하지 말라며 욕하기 시작하셨다. 내가 다가가서 이제 곧 설이니 집안에 안 좋다며 더 이상 욕하지 말라고 만류하자 시어머니는 나까지 엮어서 함께 욕하셨고, 차마 귀로 듣기 힘든 상스러운 욕을 퍼부으셨다. 나는 순간 심성을 지키지 못하고 시어머니와 맞붙었다. 물건을 쿵쿵 소리가 나게 내던지며 시어머니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섭게 쏘아붙였고, 시어머니는 겁에 질려 방으로 숨어버리셨다. 비록 분풀이를 해 무척 후련했지만 나중에는 무척 후회했다. ‘이렇게 여러 해를 잘 참아왔는데 오늘은 왜 참지 못했을까?’

나는 자신을 꼼꼼히 찾아보았다. 여러 해 동안 왜 시어머니를 참을 수 있었을까? 첫째는 가정의 화목에 지장을 줄까 봐 두려웠고, 남들이 며느리가 불효막심하다고 수군거릴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둘째는 참지 못하고 입을 지어 층차가 떨어질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런 참음은 모두 속인의 억울함에서 비롯된 참음이고 눈물을 머금고 참은 것이며 우려하는 마음에서 참은 것이지, 근본적으로 자비로운 수련인의 참음이 아니었다.

남편은 외지로 돈을 벌러 가기 전에 나에게 당부했다. “밥상 좀 잘 차려드리고 말과 행동도 조심해. 혹시라도 어머니 화나게 하면 당신 혼자서 감당 못 할 거야.” 이 일로 나는 시간을 아껴 써야 했고 일찍 가게 문을 닫은 뒤 집에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텃밭을 가꿨다. 매일 씻고 나면 대략 밤 10시가 넘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늦잠을 자는 바람에 아침을 챙길 새도 없이 그냥 나갔다. 오후에 시어머니는 내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자마자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셨고 나는 화가 순식간에 치밀어 올랐다. 내가 막 마당에 들어설 때 이웃 사람이 “당신 시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오후 내내 당신 욕을 했으니 조심해”라고 일러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생각을 바꿔 오늘 참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마음속 분노를 억누르며 말씀드렸다. “어머님, 오늘 진지 못 드셨어요? 제가 지금 바로 끓일게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사실 시어머니는 억지를 부리며 생떼를 쓰신 것이다. 시어머니는 원래 아침을 안 드시고 가끔 미음 같은 것을 좀 드실 뿐, 아침 10시쯤에야 일어나서 방안의 막대기들을 치우고 나면 대략 정오 12시가 되어 점심과 아침을 한 끼로 드셨는데, 이는 고의로 트집을 잡아 욕을 하신 것이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내가 몇 달째 고기반찬을 안 해준다고 욕하셨지만, 남편이 외지로 돈을 벌러 나간 지는 아직 한 달도 안 된 때였다. 나는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평소처럼 밥상을 차려다 드렸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나는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지 않고, 밥상을 나를 때도 한 발은 방 안에 한 발은 문밖에 둔 채 물건만 책상에 올려놓고 바로 나왔다. 이런 일이 너무 많았고 거의 매일 사람 마음을 갈고뒹게 만들었다.

나는 무척 부끄러웠다. 28년을 수련하면서 28년 동안 원망했는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심을 점차 깨끗이 제거하고 담담하게 볼 수 있게 됐다.

나는 지금 시어머니를 봐도 그렇게 밉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무척 불쌍하게 여겨지며, 시어머니야말로 오로지 나를 성취시키고

내 수련을 도와주기 위해 온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시어머니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느낀다. 내가 이 글을 거의 다 써갈 무렵,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바람이 새던 스쿠터 타이어에 바람이 가득 채워졌고 더 이상 새지 않았다. 그동안 계속 고압 공기 주입기로 바람을 넣어도 절반밖에 차지 않고 그마저도 샀는데 지금은 정상이 됐다.

치통 후의 깨달음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얼마 전 나는 열흘 남짓 치통을 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가족 수련생이 해바라기씨를 사 왔는데 맛있어서 어느 날 한 무더기나 먹었기 때문이다. 이 해바라기씨 껍질은 아주 단단해서 갈 때 이빨로 힘껏 깨물어야 했다. 가족 수련생은 또 수수 사탕도 사 왔는데 이에 아주 잘 들러붙는 사탕이라 한 번 씹으면 앞니에 붙어 큰 힘을 들여야만 삼킬 수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국을 끓일 때 말린 버섯을 넣었는데 아내(수련생)가 씹지를 못해서 나 혼자 힘껏 씹어 먹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자 말린 버섯을 씹었던 왼쪽 위아래 치아 전체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차갑고 뜨겁고 시고 단 음식에 닿기만 해도 다 아팠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밥을 먹을 때였다. 해바라기씨를 힘껏 갉던 왼쪽 앞니와 그에 맞물리는 아래 치아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조금이라도 단단한 음식에 닿으면 앞니가 뿌리째 부러질 것만 같았고 그 통증이 머리뼈 전체로 퍼져나갔다.

치통이 나타난 후 나는 앞서 말한 세 가지 상황을 떠올렸지만,

그것들은 사실 모두 표면적인 요인임을 알고 있었다. 치통이 생기기 전날을 돌이켜보니, 회사 동료들과 함께 어떤 일반인이 자기 아들을 지나치게 응석받이로 키우는 일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있었다. 함부로 남의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흉을 보는 것이 곧 업을 짓는 일임을 나는 알고 있다. 아내도 내가 원인을 찾도록 도와주며 일깨워주었다. “식탐이 너무 강해요. 해바라기씨를 한 번에 그렇게 많이 먹고, 출근할 때도 사탕을 한 움큼 쥐고 나가고, 평소 고기도 엄청 먹잖아요. 여러 번 식욕을 절제하라고 일깨워줬는데도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온갖 핑계를 대며 먹는 욕망을 방종했어요.” 나는 치통이 여러 요인이 쌓여 발생한 것임을 알았다.

그 후로 치통은 좋아졌다 나빠졌다는 반복했다. 직장에서 바르게 일할 때는 아프지 않았고 진상을 알릴 때도 아프지 않았으며 법공부나 법을 외우며 마음에 새길 때도 그다지 아프지 않았지만, 한가할 때면 아팠는데 그것도 무척 당황스러울 정도로 심한 통증이었다. 어떨 때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앞니가 아래 치아에 살짝 닿기만 해도 아프기 시작했고 밥을 먹을 때는 더욱 아팠다. 이 기간에 가족이 식사를 차릴 때 아주 부드러운 음식만 만들어 주었다. 예전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무척 기뻐하며 실컷 먹던 모습은 사라지고, 그 대신 밥 먹는 일이 형벌처럼 느껴졌다. 아내는 예전에 내가 밥 먹는 모습을 보면 늘 아주 맛있게 먹어서 입맛이 없던 사람도 나와 함께 밥을 먹으면 식욕이 살아날 정도였다고 했다. 그녀는 요 며칠 내가 얌전하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예전처럼 게걸스럽게 먹지 않고 오래 씹어 천천히 삼키는 법을 배운 것 같다고 했다. 조금만 방심해서 그 앞니가 단단한 음식에 닿기라도 하면 뻗속까지 파고드는 통증이 왔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피해 가며 먹어야 했다.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치통 때문에 몹시 낙담했던 기억이 난다. 낙담한 이유는 통증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내 깨달음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치통이 오기 전 수련생이 여러 차례 내게 일깨워주었다. “평소에 능동적으로 수련해야지 고난이 닥쳤을 때 고통 속에서 수동적으로 수련해선 안 됩니다.” 나는 당시 왜 수련생의 일깨움을 귀담아듣지 않았을까? 사실 그것은 사부님께서 수련생의 입을 빌려 나를 일깨워주신 것일 가능성이 큰데 나는 그토록 깨닫지 못했다. 예전에 먹는 것에 그토록 집착하고 욕망이 컸으며 사람 마음이 무거웠던 모습을 돌이켜보니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다. 그렇다, 치통이 오기 전날 나는 간식 가게 앞을 지나다가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간식을 여러 가지 샀고 싸게 잘 샀다고 생각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나는 다른 수련생들에게도 깊은 미안함을 느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적지 않은 수련생들이 많은 적든 치아 방면에서 고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전에 어떤 수련생의 치아가 안 좋아져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게 됐다는 말을 들으면 나 혼자 은근히 우쭐해 하며 내 치아는 괜찮다고 생각했고, 수련생의 치아가 안 좋다면 왜 수구(修口) 방면에 공을 들이지 않는지 의아해했다. 늘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려 하는 것은 그 안 좋은 물질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냐고 여겼다. ‘나를 보라, 아무리 단단한 음식도 다 먹을 수 있고 씹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던 내가 막상 같은 상태가 되고 나서야 고통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길 얼마나 바라는지 알게 됐다. 다른 사람을 동정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높이며 교만하던 그런 상태가 바로 악에게 빈틈을 내준 부분일 가능성이 컸다. 그날 나는 밥을 먹으면서 아내에게 말했다. “이제야

이런 시련 속에 있는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동정할 수 있게 됐어요.” 가족이 말했다. “그런 상태는 평소에 수련해 내야죠. 평소에 남에게 좀 더 사랑과 선의를 가져야 해요. 꼭 자신이 직접 겪어보고 나서야 남을 동정할 생각을 해선 안 되죠…”

나는 치통에 식탐에 관한 허점도 있지만 사실 수구 방면의 문제도 있음을 알았다. 그 무렵 나는 우리 회사의 큰 거래처가 다른 대기업에 인수될지 여부에 너무 집착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들이 인수되면 더 이상 우리 회사에서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내 직접적인 이익과 관련된 일이었기에 그 일에 몹시 신경 쓰고 있었다. 어느 공장 영업사원이 이 일을 언급하는 것을 듣고 나서 나는 어디를 가든 알아보고 다니며 남들과 이 일을 논의했고, 내 추측을 섞어 그 대기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기까지 했다.

나는 이 일을 말하고 나면 치통이 더 심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경각심을 가졌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내가 여기저기서 뜬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게 아닌가? 그것은 전형적으로 수구하지 못한 것이었다.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적당한 사람을 만나 막 물어보려다가도 치통의 상황이 번뜩 떠올라 입 밖으로 나오려던 말을 억지로 삼켜 버렸다. 그 후로 나는 이 일에 관여하는 것을 완전히 멈췄다.

이후 나는 직장이나 가정에서 가끔 무슨 말을 하려다가도 먼저 이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생각하게 되었다. 법에 부합하지 않고 수련인의 심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말이라면 해서는 안 됐다. 그 치통이 내게 남긴 인상이 너무나도 깊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예전에는 아내가 무심코 나를 자극하거나 내 관념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되받아치

거나 몇 마디 빈정대며 쏘아붙였다. 가정에서는 마음이 편안해지다 보니 어떨 때는 내가 수련인이라는 사실조차 완전히 잊어버렸고 주의식(主意識)을 거치지 않고 말을 내뱉었던 것이다. 지금은 내가 이 방면에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음을 발견했다. 우선 침묵을 지킨 다음 사부님의 법을 떠올리고 웃어넘기게 됐다. 직장에서나 고객 앞에서도 내가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수련한 지 20여 년이 됐는데 치통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나서야 수구의 중요성을 알게 됐으니 내 깨달음이 보통 부족한 게 아니라고 말이다. 사부님께서 ‘전법륜(轉法輪)’에서 우리 수련인에게 가장 먼저 “때려도 맞받아치지 않고, 욕해도 대꾸하지 않는다”라고 요구하셨다. ‘수구’ 단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해낸 적은 정말 너무 적었고,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은 진정으로 부끄러웠다.

치통이 아주 심했던 며칠간 몸도 괴롭고 마음도 다소 불안해서 생각했다. ‘이것은 업을 소멸하는 것일까, 언제까지 소멸해야 할까?’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설령 업을 소멸하는 것이거나 사람 마음의 집착 때문에 사악에게 빈틈을 내주어 그 사악한 생명이나 벌레, 세균 따위가 거기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이라 해도 사부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아, 사부님께서 장계취계(將計就計)하시어 내게 사람 마음의 집착을 없애고 수련 속에서 승화해 올라오기를 바라시는 거구나, 이것이야말로 사부님께서 원하는 것이구나. 나는 단번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나는 또 요 며칠간 걸으로 드러난 많은 사람 마음과 욕망을 찾아냈던 것을 떠올렸다. 이렇게 긴 세월 동안 그것들을 없애지 못한 것은 줄곧 사소한 일로 치부하며 신경 쓰지 않고 전혀 중시하지 않

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먹는 문제에 있어서 가족이 예전에 일깨워줄 때 고기를 먹으려는 내 욕망이 너무 강하다고 했다. 나는 예전에 정말 몹시 기분이 나빴고(지금 생각해보면 그 욕망이 기분 나빴던 것이다) 이 문제를 두고 침소봉대한다고 여겨 이렇게 말했다. “극단으로 가지 마요. 먹을 건 먹어야지. 예컨대 고기 말인데, 내가 먹지 못할 상태라면 배가 아플 텐데 난 배가 안 아프잖아요.” 또 수구 방면에서도 엉망진창이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남이 자극적인 말을 하면 마음이 당장 불편해져서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고 어조가 한껏 높아지기도 했다. 밖에서는 체면 문제가 있으니 그나마 좀 나았지만 가정에서는 훨씬 더 심했다.

이번에 치아가 너무 아파 뺏속까지 통증이 스며들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봐도 욕망이 생기지 않았고 아무리 자극적인 말을 들어도 감히 함부로 되받아치지 못하게 되었다. 우선 냉정하게 생각한 다음 선의를 품고 평온하게 말하거나, 아니면 아예 말하지 않게 되었고 굳이 해명할 필요도 없다고 느끼게 됐다.

이틀 전 나는 생각했다. ‘내 깨달음이 너무 부족해 이런 집착과 욕망이 이 지경까지 내몰리고 나서야 고칠 생각을 했구나. 지금 확실히 없애고 고쳤지만 오래갈 수 있을까? 나아진 뒤에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생각을 돌려보니 모든 것은 사부님께서 지켜보고 계시지 않은가? 어쩌면 내가 먹는 방면과 수구 방면에서 정말 올바른 상태를 갖추고 좋은 습관을 기르게 되면 치통은 사라질 것이다. 치통은 가상에 불과하고 사부님께서 장계취계하시어 내 제고를 위해 이용하신 것이니, 내가 진정으로 제고된다면 사부님께서 그러한 교란이 더 이상 존재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정사(正邪) 대전(大戰)의 최후의 시각인 지금, 사부님께서서는 우리

개인에게 그렇게 끝없는 업 소멸 과정을 안배하지 않으셨다.

이 기간에 해외 상황을 알게 됐기에 나와 가족 수련생은 모두 강도를 높여 발정념으로 사악을 제거하고 있었다. 이틀 전 정념을 발하려 할 때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내 치아가 이렇게 아픈데 일단 해외 상황을 위해 급하게 발정념할 게 아니라 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보자.’ 하지만 생각을 돌려보니 사악이 해외에서 이렇게 미쳐 날뛰는데 내가 어찌 이토록 이기적일 수 있겠는가? ‘대법제자 한 명이 정념을 더 발하면 아주 큰 힘이 더해진다. 나는 대법제자의 정체(整體) 속에 녹아들어 너희 이 모든 사악을 철저히 해체해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정념의 목표를 해외에서 대법을 박해하는 모든 사악에게 직접 겨누었다.

뜻밖에도 정념을 발하고 나자 치아가 그다지 아프지 않았다. 그저 계와 어제 나는 몇 사람에게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해주었다. 오늘 치아가 아프지 않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 속에서 구우주의 이기적인 작은 자아와 가짜 자아를 내려놓아야만 신우주의 사심이 없는 큰 자아와 진짜 자아를 성취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정말 단 하나도 사부님을 위해 하는 것이 없으며 전부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임을. 사부님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모든 것,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은 전부 대법제자를 성취시키고 더 많은 중생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사부님의 자비롭고 고생스러운 제도에 깊이 감사드린다.

약간의 개인적인 인식일 뿐이니 부족한 부분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로 바로잡아주시길 바란다.

제거하기 어려운 휴대폰 중독과 근본 집착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몇 년 전, 나는 휴대폰 중독에 빠져 사악의 교란을 초래한 적이 있다. 당시 늘 바빴던 업무가 마침내 수월해져 법공부 시간이 보장됐지만, 매일 제시간에 법공부를 마치고 나면 마치 임무를 완수한 것 같아 나머지 시간에는 긴장을 풀기 시작해 드라마나 교양 프로그램 등을 보았고, 또한 늘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업무와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핑계를 찾아 자신을 느슨히 했다. 사악의 전화 교란이 오고 나서야 비로소 어쩔 수 없이 안으로 찾으며 이러한 집착들을 내려놓게 됐다.

얼마 후 또 느슨해져서 업무 자료나 업무 관련 글, 사회 이슈 등을 보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이런 것들도 보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남겨둔 것은 모두 업무 도구 앱이었다. 하지만 업무나 생활에서 필요해 휴대폰을 켜기만 하면 또 핑계를 찾아 참지 못하고 잠시 보게 됐고, 문득 정신이 들어 서둘러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방금 어떻게 휴대폰을 켜는지, 어쩌다 이 내용을 터치하게 됐는지 스스로도 망연하고 얼떨떨했다. 늘 자신이 힘겹게 억제하고 억제한다고 느꼈지만 억제하지 못하고 또 보았다. 또 마치 끊임없이 떠보는 것 같았는데 아무 일도 없으니 또 보고, 아직 아무 일도 없으니 다시 보고…… 그러다 어떤 번거로운 교란 등을 초래하고 나서야, 긴장된 압력 속에서 부득이하게 안으로 찾으며 강제로 자신의 정념을 강하게 해 법공부, 법 암기, 발정념을 강화했고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하에 비로소 이겨낼 수 있었다.

몇 년 동안 휴대폰 중독을 반복적으로 제거하면서 점차 약해졌지만 끝내 완전히 없애지 못해 나 자신도 매우 괴롭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줄곧 휴대폰 중독 배후에는 색욕심이 있다고 여겨, 발정념으로 휴대폰 중독을 제거하는 동시에 색욕심, 호기심 등도 제거했다.

바로 이 글을 쓰기 전날, 어른을 위해 의료용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하느라 잠들기 전 쇼핑 플랫폼을 살펴보고, 이후 또 몇 가지 상품을 뒤적이다가 꽤 유용하다고 생각해 서둘러 즐겨찾기해 두었다. 갑자기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황급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밤에 꿈속에서 나는 동료와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잠시 후 오히려 귀신과 게임을 하기 시작했고, 한동안 게임을 하다가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 있는지 생각나, 다급한 마음에 힘껏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우고 나서야 비로소 공중으로 솟아올랐다. 꿈에서 깜짝 놀라 깼다.

근본 집착이 ‘근본’인 이유

일찍이 수련생들이 모두 안으로 찾으며 자신의 근본 집착을 파헤쳤기에 나도 찾았다. 하지만 나의 근본 집착은 무엇일까? 나는 어릴 적부터 몸이 약했지만 딱히 큰 병은 없었고, 처음에 법을 배울 때는 몸이 좋아지기 위한 요소도 있었지만 근본 집착은 아니었다. 그럼 나는 애초에 무엇 때문에 대법을 배우기로 결정했을까? 대법을 배우면 수련 성취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수련 성취하고 싶은 것이 잘못된 것일까? 수련 성취하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인가? 수련 성취하면 인간 세상의 각종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세상일에 얽매이지 않으며 초탈해 자유자재함에 도달

할 수 있다. 아! 나는 고통을 겪기 싫었고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져서 인간 세상의 번뇌에 시달리지 않고 세상을 초월해 자유자재하게 살고 싶었던 것이다. 여기까지 찾았을 때 나는 이것이 근본이라고 여겼다. 이번에 휴대폰 중독이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제거하기가 몹시 어려워, 끊임없이 깊이 안으로 찾고 나서야 세상을 초월해 자유자재하고 싶은 그 이면에 안일심이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바로 그 근본 집착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휴대폰 중독의 뿌리는 바로 안일심으로, 편안함을 추구하고 생활의 평온함과 즐거움을 누리며 안일에 휩싸일 때마다 휴대폰 중독이 튀어나오는 것이었다. 휴대폰 중독은 안일심에 의해 자양분을 얻는 것이라 그것에 자양분을 주는 토양이 제거되지 않았기에 휴대폰 중독은 줄곧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끈적끈적하며 제거한 후에 또 나타나고 한 층을 제거하면 또 한 층이 있었던 것이다. 비록 점차 약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존재했다. 게다가 안일심이라는 이런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 삶기’는 더욱 교활하고 은폐되어 있어, 휴대폰 중독을 제거할 때 마치 솜에 주먹을 날리는 듯한 무력감을 느끼게 했다.

이 사고의 틀을 열고 난 후 나는 많은 집착심이 모두 근본 집착인 안일심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다. 두려운 마음은 사악의 박해와 교란이 두려운 것으로 사실은 안일한 생활환경을 잃을까 두려운 것이다. 사심은 오직 자신만 위하고 중생을 위해 생각하지 않으며 단지 자신의 안일한 생활을 지키려 할 뿐이다. 이익심은 돈을 모으고 싼 물건을 사려 하며 돈이 더 많아지려는 것인데, 역시 자신의 안일한 생활을 지키려는 것이다. 업무에서 남과 비교하며 남처럼 편안하고 싶어 하는 것도 역시 안일심이다. 남처럼 안

일하지 못하면 평형을 잃는 것은 쟁투심이다. 나보다 편안하게 보이는 동료에 대해서는 질투심이 있다. 누가 내게 업무량이나 생활의 부담을 가중시키면 마음속으로 원망이 생기는 것은 원망심이다. 때로는 배불리 먹고도 맛있다고 느껴 몇 입 더 먹으려 하고 때로는 일을 끝내고 지쳤을 때 시간이 있으면 잠깐 눈을 붙인다. 식탐과 수면 탐닉은 더욱더 안일심의 표현이다…… (이 글을 다 쓴 후 나는 또 발견했는데, 휴대폰 중독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나의 안으로 찾기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었다. 압력하에서 비로소 어쩔 수 없이 안으로 찾은 것으로 부득이한 것이었다. 안으로 찾아 이후 생활이 다시 평온해지고 시간이 길어져 환경이 느슨해지면 안일심이 또 튀어나왔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을 보는 집착심이 또 몰래 생겨났다. 마치 안으로 찾는 것조차 안일한 환경을 보호하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았다.)

근본 집착이 ‘근본’인 이유는 그것이 근본이자 뿌리이며 그것이 있으면 곧 각종 다양한 집착심에 자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그런 집착심들은 마치 풀과 같아서 잎을 제거해도 뿌리가 여전히 남아 있고 생존 환경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것들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토양이 여전히 남아 있어 제거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는데, 그것의 뿌리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본 집착 제거를 중시해야 하며 그것을 철저히 제거해야만 다른 집착심을 더욱 잘 제거할 수 있다.

당연히 무슨 집착이든 그것들은 모두 우리의 것이 아니며 진정한 자신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것을 승인하지 않는다.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배치해주신 것이 아니면 모두 원하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며, 나는 오직 대법의 관할만 받고 오직 사부님의 관할

만 받으며 오직 사부님께서 배치하신 길에서만 수련한다.

마지막의 마지막에 사부님께서 배치하신 길을 잘 걸어가며, 사부님께서 배치하신 길에서 수련해 끝까지 걸어가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층차가 제한되어 있으니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

옳고 그름을 떠나 무조건 안으로 찾다

글/ 지린성 대법제자

[명혜망]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거듭해서 ‘체면’을 내려놓는 수련 과정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글로 써서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들과 교류하고자 합니다.

M 수련생과 제 아내(수련생)는 밖에서 진상을 알릴 때 알게 됐고 서로 신뢰합니다. M이 심성 고비를 넘길 때면 늘 제 아내를 찾아 교류했습니다. 재작년 중국법회 원고모집 때 저는 M을 도와 원고를 수정해 줬습니다. M의 법회 원고가 명혜망에 발표됐고, 저는 M이 착실하게 수련하며 정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 가지 일이 발생해 저와 M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제 딸이 외지에서 차에 치여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밤을 새워 병원으로 달려가느라 아무에게도 알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2주 후 딸이 퇴원했고 저는 살던 곳으로 돌아왔으며 아내는 남아서 딸을 돌봤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한 다음 날 M이 찾아와 화를 내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 어디 갔었어요? 언제 갔어요? 뭐하러 갔어요? 샤오(小)○(제 아내)는 왜 안 돌아왔어요? 당신은 오늘 왜 (진상을 알리러) 나가지 않나요?” 그녀의 말투와 표정과 언사는 저를 심문하는 것 같아 저는 매우 놀랐으나 억지로 참으며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또 이 지역에 가짜 경문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남자라고 말했습니다.

M이 돌아간 이후 제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M의 말 속에 뼈가 있구나. 마치 내가 무슨 짓을 한 게 아닌가 의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제 마음속은 몹시 분했습니다.

하루가 지나 저는 밖에서 M을 찾아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런 태도로 저에게 말하나요? 무슨 일이 있나요? 직접 대면해서 분명히 말해주세요.” 그녀는 며칠 동안 저와 아내를 보지 못해 우리가 중공 악당에 잡혀간 줄 알고 수련생들이 모두 무척 초조해했을 뿐 다른 뜻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짢게 헤어졌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빨리 돌아오라고 재촉했는데, 아내가 돌아온 이후 M은 오히려 저를 의심한 적이 없다고 말했고 저는 M이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결백한 사람은 스스로 결백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미 십여 일 동안 마음을 가라앉히고 법공부를 하지 못해 교란이 유독 컸고 몸은 이미 기력을 다 소진했으므로, 저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바로 법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법의 요구와 거리가 너무 멀어 안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 마음이 건드려졌는가?’ 억울하고 모욕을 당해 체면이 깎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체면’이 찢려 아팠던 것이고 원망심과 쟁투심도 나왔습니다. 이는 사부님께서 이 일을 통해 이런 좋지 않은 마음들을 폭로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좋지 않은 마음을 제거하는 과정은 길고도 험난했습니다. 저는 진상을 알리러 나갈 때마다 늘 M과 마주했는데 피하려 해도 늦었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제 마음속은 몹시 불편했습니다. 진상을 알리는 데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저는 즉시 이 좋지 않은 물질을 해체하고 마음이 가라앉은 다음에야 진상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그녀를 만났을 때도 여전히 이랬고,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한 인원수도 눈에 띄게 적어 저는 몹시 초조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후 저는 ‘체면’과 원망심을 겨냥해 발정념했습니다. 매번 정념을 발하고 나면 그저 조금 가벼워졌을 뿐 좋지 않은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아내도 저를 위해 초조해하며 때로는 저를 도와 함께 정념을 발해 줬고 저에게 법공부를 많이 하라고 일깨워 줬습니다.

사부님의 법에 대조해 보니 제가 틀렸고 제가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지는 사람의 이치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일의 진상이 무엇이고 누가 옳고 그른지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으며 수련생으로서 사람 마음을 찾고 사람 마음을 제거해 제고해 올라가는 것이야말로 중요합니다. 법을 알고 나니 제 마음의 매듭이 풀렸고 몸에 있던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는 M을 피하고 싶지 않았고 반드시 자신의 길을 바르게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명혜망 교류 글을 한 편 읽었는데, 수련생이 ‘명예욕’을 파낸 것이 저에게 깨달음을 줬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오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까 봐 걱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명예욕’이 아닙니까? 이전에 저는 줄곧 자신이 명예욕을 내려놓았고 행하되 추구하지 않는다고 여겼는데, 이 마음이 줄곧 숨어 있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명예욕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체면을 차리게’ 됩니다. 명예욕이 있으면 항상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면만 보여주려 하고 좋지 않은 일면은 덮어 감추려 합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소리를 들으면 마음에 불평이 생깁니다. 그럼 명예욕의 배후는 또 무엇입니까? 사심이고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감정은 돌보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만 변화시키려 할 뿐 자신은 변화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안으로 찾았는데, 찾으면 찾을수록 머리가 더욱 맑아졌고 찾으면 찾을수록 마음속이 더욱 평화로워졌습니다.

저는 일찍이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또 법회 원고모집이 있어 M이 나를 찾아와 원고를 수정해 달라고 한다면 거절할까?’ 제 마음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수련해 왔으니 나는 대법을 첫자리에 놓을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마음이 순수하지 않은데 원고를 잘 수정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신성한 일을 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바로 이 원고를 쓰기 며칠 전, M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올해 법회 교류 원고를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데 괜찮을까요?”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다 쓰시면

저에게 주세요.”

저는 M의 원고를 수정한 이후 명혜망으로 발송했는데, 녹색 직사각형 테두리에 ‘발송 성공’이 나타났을 때 제 마음속은 유난히 맑고 밝았으며, 저는 수련생에 대한 원망심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한궐, 역사의 전환점에서 ‘숨은 수호자’를 자처하다

글/ 리밍다오(李明道)

[명혜망] 중국에서 집집마다 다 아는 전통 희곡 중 ‘조씨고아(趙氏孤兒)’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작품이다. 사람들은 정영(程嬰), 공손저구(公孫杵臼) 등이 목숨을 버리고 의(義)를 취한 충의 정신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조마조마하고 가슴 떨리는 역사적 비극에서 절대다수의 사람은 지극히 중요한 ‘숨은 수호자’를 간과했다. 그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희생은 없었으나 암암리에 보호망을 쳐서 충신의 혈통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2백 년 후 자신의 온 가문 운명을 조용히 바꿔놓았다.

그가 바로 진(晉)나라 장군 한궐(韓厥)이다.

운명의 선택: 공범이 되지 않고 암암리에 돕다

그당시 진나라 간신 도안가(屠岸賈)는 대권을 독점하기 위해 조삭(趙朔)의 온 가족을 죽이려 했다. 피비린내 나는 그 시각, 절대다수 관원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수수방관하거나 나쁜 무리와 한패가 됐다.

한궐은 오히려 나섰다. 그는 도안가를 극구 만류했을 뿐만 아니라 큰 재난이 닥치기 전에 조삭에게 소식을 전했다. 조삭이 눈물을 머금고 곧 태어날 아기를 부탁하며 조씨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길 희망하자 한궐은 묵묵히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도안가가 조씨 가문을 피로 물들일 때 한궐은 병을 핑계로 참여하지 않았고 침묵으로 저항을 나타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영과 공손저구가 어떻게 몰래 아기를 바꾸고 어떻게 조씨 집안 고아를 숨겼는지 한궐은 전 과정을 속으로 훤히 꿰뚫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병권을 쥐 장군으로서 그는 귀머거리와 병어리 행세를 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정의에 대한 가장 큰 암묵적인 비호였다.

15년 후의 전환

어느덧 15년이 지나 그해의 아기(조씨 집안 고아)는 이미 소년으로 성장했다.

진 경공(景公)이 병에 걸렸는데 어느 날 꿈에서 한 귀신이 “네가 내 자손을 죽인 것은 의롭지 못하다. 내가 천제께 청을 올려 허락을 받았다!”라고 외치며 침전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경공이 두려워 점쟁이를 불러 물으니 “올해 보리가 익는 것을 보지 못하실 것입니다”라는 흉조를 들었다.

한바탕 혼란스러운 가운데 한궐은 시기를 포착했다. 그는 언지시 경공에게 조씨 가문의 옛 공훈을 칭찬하고 오늘날 조씨 가문이 뜻밖에도 대가 끊긴 것을 애탄하며, 그 원혼이 빌미가 되었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말을 들은 진 경공이 놀라며 “조씨 가문에 혹시 아직 후손이 남아있는가?”라고 묻자 한궐은 비로소 15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냈다. “조무(趙武)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한궐의 계책 덕분에 조씨 가문의 억울한 사건은 씻은 듯이 밝혀졌고, 조무는 가업을 이었으며, 아울러 여러 장군과 연합해 간

신 도안가를 제거했다. 이로써 공손저구의 희생과 정영의 헌신은 마침내 한궐의 호위 아래 정의로운 결말을 맞이했다.(역주: 공손저구와 정영은 당시 조씨 가문의 식객이었는데, 다른 아기를 조무 대신 산속에 숨겼다. 정영이 도안가에게 거짓으로 밀고하여 군사를 그곳으로 유인하고, 공손저구는 결국 바뀌친 아기와 함께 죽임을 당했다.)

사마천의 진기(眞機): 왜 ‘남을 괴롭히면 곧 자신을 해치고, 덕을 쌓으면 반드시 번성한다’고 하는가?

여기까지 오면 많은 사람은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역사는 오히려 2백 년 후 한궐의 후손에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후한 ‘답례’를 보냈다.

진나라에서 한씨 가문은 사실 놀라운 공훈을 세운 적이 없었다. 그러나 전국시대에 이르러 한씨 자손은 오히려 조씨, 위씨(魏氏)와 함께 진나라를 분할해 단숨에 ‘전국 칠웅(戰國七雄)’ 중 하나인 한(韓) 나라가 됐고, 제후로 봉해져 나라를 세우며 부귀가 십여 대를 이어갔다.

왜 공훈이 뚜렷하지 않은 가문이 이처럼 거대한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대역사학자 사마천(司馬遷)은 ‘사기(史記)·한세가(韓世家)’의 결말에서 이 배후의 천기를 간파했다.

“한궐이 진 경공을 감동하게 해 조무에게 대를 잇게 했으니…… 이는 천하의 음덕이다…… 그러니 조씨, 위씨와 함께 마침내 십여 대에 걸쳐 제후가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맺음말: 진상을 아는 것이 복이며, 양심을 지키는 것이 희망의 길이다

‘조씨고아’가 천년을 넘어 지금까지 전해지고 심지어 유럽에까지 전해져 볼테르, 괴테 등 서양의 대가들을 감복시킬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그 속에 인류의 영원한 보편적 가치인 충의 정신과 선악에 보답이 따른다는 진리가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복잡다단한 정치 운동과 관련된 ‘현실적 이익’ 앞에서 어떤 사람은 도안가의 ‘앞잡이’가 되기를 선택한다. 눈앞의 짧은 명예와 이익을 위해 남을 괴롭히고, 해치며, 선량한 파룬궁수련자를 짓밟아 결과적으로 늘 신세를 망치고 자손에게까지 화가 미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반면 어떤 사람은 한궐과 같은 선택을 한다. 비록 험난한 환경과 압력의 소용돌이에 처하더라도 마음속 양심의 마지노선을 굳게 지키며, 차라리 병을 핑계 대고 암암리에 도울지언정 ‘진선인(眞·善·忍)’을 사람이 되는 지도로 삼는 파룬궁수련자를 절대 해치지 않는다.

한궐은 그의 역사적 선택으로 우리에게 알려준다. 결정적인 시기에 선량함을 보호하고, 천도를 경외하며, 박해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바로 자신과 자손 후대를 위해 가장 큰 복을 쌓는 것이다. 이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역사의 전환점에서 우리 모두 양심을 닦으로 삼아 진상을 더 똑바로 직시하고, 눈앞의 공리와 이익을 좇는 맹종을 줄이길 바란다. 그리하여 자신을 위해 음덕을 쌓고 평안으로 향하는 항로를 선택하길 바란다.

부처님을 해치면 죽고, 부처님을 공경하면 산다

— 역사의 비바람 속에서 당신의 결말을 선택하라 —

글/ 종봉(從封)

[명혜망] 창궁 아래에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소중한데, 왜냐하면 사람은 시비를 명확히 가리고 양심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또한 지극히 연약해서 천재지변과 인재(人災) 앞에서는 종종 견뎌내지 못한다.

중국 전통문화는 줄곧 ‘경외(敬畏)’라는 두 글자를 강조해 왔다. 신성함에 대해, 신앙에 대해, 선량함에 대한 일념의 차이가 종종 한 사람, 심지어 한 가문의 최종 운명을 결정짓는다. 역사는 거울이 되어, 하나하나의 진실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준다. 경외하는 자는 살고 오만방자한 자는 망한다.

최씨 가문의 비극

북위(北魏) 시기, 조야를 뒤흔드는 권력을 가진 중신 최호(崔浩)가 있었다. 그는 재주가 넘치고 음양술수에 정통해 스스로 한 나라 장량(張良)을 자처했다. 그는 여러 차례 태무제(太武帝)를 도와 계책을 내고 군웅을 무찔러 북위가 북방의 패자가 되게 했다. 그러나 이토록 지모가 뛰어난 공신이 불교를 극력 배척했다. 최호의 거듭된 진언에 태무제는 사원을 불태우고 불상을 파괴하라고 명령했고, 이는 민중의 원성을 샀다.

최호와 반대로 그의 아내와 사촌 동생 최모(崔模)는 모두 불법(佛法)을 지극히 존중했다. 한번은 최호가 아내가 불경을 외우는

것을 보고 크게 화를 내며 불경을 빼앗아 불태웠고, 심지어 그 재를 화장실에 버렸다. 사촌 동생 최모는 막을 힘이 없어 가슴 아파하며 그 오물 무더기를 향해 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최호는 이를 보고 오히려 동생이 황당하고 우매하다고 크게 비웃었다.

그러나 역사의 청산은 신속하고 잔혹하게 다가왔다.

몇 년 후, 최호는 황제의 노여움을 사 족쇄를 차고 형장으로 압송됐다. 형장으로 가는 길에 과거 높은 자리에 있던 최호는 분노한 호위병들에게 머리에 오줌을 맞는 수모를 겪으며 울부짖어야 했고, 결국 온 가문이 멸문당하는 화를 입었다.

하지만 이 멸문지화의 가문 참극 속에서 오직 최호에게 ‘황당하다’고 조롱받았던, 불법을 경앙해 묵묵히 절했던 동생 최모만이 기적적으로 사형을 면하고 목숨을 보전했다.

왜 천리는 신앙에 대한 짓밟음을 용납하지 못하는가?

많은 사람이 묻는다. 불가는 자비와 관용을 말하지 않는가? 왜 신앙을 파괴하고 수련자를 해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는가? 설마 부처님의 속마음이 사실 매우 좁단 말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전통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불법은 우주의 진리이자 질서다. 우주에는 원칙과 마지노선이 있다. 수련인을 해치고 신성한 신앙을 헐뜯는 것은 바로 선악의 마지노선에 도전하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마치 한 아이가 고집스럽게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해치려는 것과 같다. 어머니의 마음이 아무리 관대해도 인간의 법률은 절대 그의 죄를 사면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사람이 땅에서 악을 행하면 천리가 창공에서 저울질한다. 이른바 ‘응보’란 우주의 거스를 수 없는 법칙이 작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천 년 후의 경고: 자오춘보의 비극

세월이 흘러 1천여 년의 시간이 쏠살같이 지나갔다. 21세기인 오늘날, 이와 유사한 역사적 비극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가?

1999년 특정 신앙을 겨냥한 탄압 정책이 전면적으로 전개된 이후, 일부 지방 관리들은 눈앞의 권위를 위해 기꺼이 체제의 살육 도구가 됐다. 전 헤이룽장성 치타이허시 공안국 국장 자오춘보(趙春波)도 그중 한 명이다.

그가 지휘하며 재직하던 기간, 대다수 무고한 파룬궁수련자가 가택수색과 납치를 당했다. 2010년, 현지의 한 여성 파룬궁수련자 류수링(劉術玲)이 노동수용소에서 잔혹하게 박해당해 목숨을 잃었는데, 피해자의 목에는 한 바퀴의 검은 어혈이 남아 있었다. 현지 공안의 1인자로서 자오춘보는 선량한 민중을 겨냥한 이러한 만행에 대해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박해해 얻은 권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2019년 11월 22일, 자오춘보는 집에서 추락해 사망하며 지극히 참혹한 방식으로 자신의 일생을 끝마쳤다.

맺음말: 생명의 귀천은 모두 자신의 일념에 달려 있다

역사상의 최호는 장량을 자처하며 지위가 높고 권력이 막강했지만 맹목적으로 불교를 반대하다 멸문당하고 온갖 수모를 겪는 신세가 됐다. 당대의 자오춘보 역시 막강한 권력을 쥐었으나 무고한 사람을 박해한 탓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막다른 길로 걸어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든 현대인에게 엄숙한 질문을 던진다. 이익의 유혹과 정치적 억압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양심을 대해야 하는가?

생명은 품행으로 인해 만인 위에 군림할 만큼 고귀해질 수도 있고, 악을 행해 비천하고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다. 파룬궁수련자는 종종 선량함과 진상을 전파하는 사자(使者)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비록 당신이 그들의 신앙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반드시 선량함에 대한 경외심을 간직하길 바란다.

진리를 견지하는 파룬궁수련자들을 선하게 대하는 것은 사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퇴로를 남겨두는 것이다. 유언비어를 믿고 맹종하는 것은 재앙이며, 시비를 명확히 가리는 것은 복이다. 모든 사람의 미래가 선한 일념 속에서 진정한 평안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 5월 23일, 멕시코시티 중심부의 쿠아우테모크구 구청 공무원의 초청으로 멕시코 파룬궁수련자들은 공개 행사를 열고 현지 시민들에게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소개했다. 참가자들은 파룬따파의 5장 공법을 배우고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 원칙을 따를 때 얻는 이로움을 알아갔다. 해당 구의 사회발전국장 베로니카 후아레스 피냐가 현장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을 지지했다. 사회발전국장이자 전 연방 하원의원인 베로니카 후아레스 피냐는 구 광장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의 방문을 환영하며 파룬따파의 원칙과 파룬궁수련자들이 주민들과 열정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칭찬했다.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55명**

■ **삼퇴 인원수**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6288만 2752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